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Monthly Journal
www.k-vic.co.kr

KVIC marketwatch

January 2019 | VOL 4.



KVIC marketwatch

「KVIC MarketWatch」는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주)가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월간 저널입니다.

January 2019

발행처
한국벤처투자(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5층

발행인
주형철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주)
www.k-vic.co.kr

문의사항
marketwatch@k-vic.co.kr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1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9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소개 31

Venture Opinion 41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육성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KVIC MarketWatch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모태펀드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당 보고서는 매월 발간되며,
이번호에서는 2018년 12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1. 모태펀드 개요

2018년 12월말 현재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4조 297억원이며, 15조 4,991억원의 외부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1조 9,305억원 규모, 총 671개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중인 출자펀드는 503개, 17조 7,981억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671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5,243개사*에 총 15조 1,089억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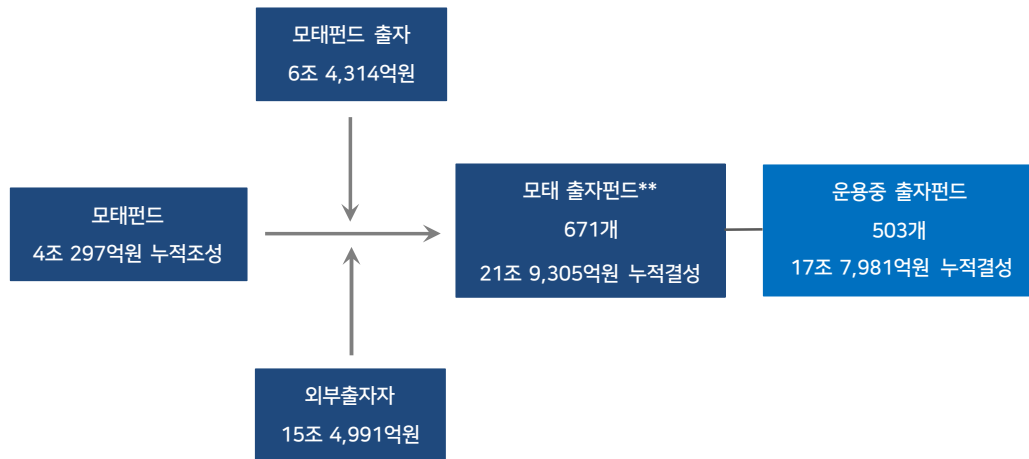


그림1] 모태펀드 운용 현황

* 전체 투자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 성과

모태펀드에 4조 297억원을 출자하여 총 671개, 21조 9,305억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조성
⇒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승수효과는 5.4배

2. 모태 출자펀드 결성

■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2018년 12월)

2018년 12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3개, 7,588억 규모이다. 12월엔 혁신성장, 민간제안 펀드 중 1,000억 이상 규모의 펀드가 다수 결성되었다.

표1]
2018년 12월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벤처투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혁신 모험	창업초기	퀀텀 창업초기1호 투자조합	KVF	퀀텀벤처스코리아	213	120	12.10
		이앤벤처1호 창업초기 투자조합	KVF	이앤벤처파트너스	200	120	12.07
	혁신성장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	KVF	티에스인베스트먼트	1,307.2	320	12.20
		메디치 2018-2 중소선도기업 창업투자조합	창투조합	메디치인베스트먼트	785	280	12.28
		BNK-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투자조합	KVF	케이앤투자파트너스	325	130	12.28
중진	소셜 임팩트	미래 ESV 투자조합 제1호	개인투자 조합	고려대학교기술지주	125	100	12.20
	민간제안	2018 IMM 벤처펀드	KVF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1,135	55	12.06
		2018 한화 IoT전문 신기술금융투자펀드	신기술 조합	한화투자증권	300	80	12.14
		스마일게이트 패스파인더펀드	KVF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1,240	10	12.28
		인터베스트 4차산업 투자조합II	KVF	인터베스트	1,500	10	12.28
청년	청년창업	라구나 청년창업 투자조합 제1호	KVF	라구나인베스트먼트	140	40	12.27
문화	게임	데브-KDBC 문화투자조합	창투조합	데브시스터즈벤처스	200	120	12.07
특허	해외 IP 수익화	IDV Global IP Growth 투자조합	KVF	아이디벤처스	118	70	12.19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18년 12월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2, 표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8조 5,026억원(38.8%)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3조 5,789억원(16.3%), 연기금 3조 186억원(1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 정책기관의 출자규모가 1조 1,564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6,956억원), 연기금(4,150억원)이 그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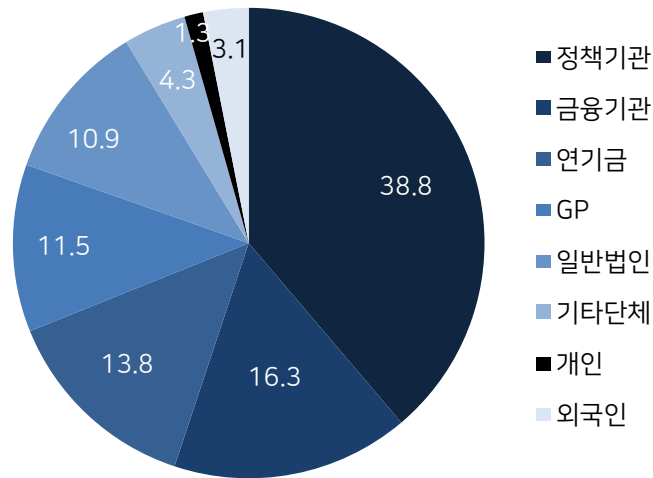


그림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
(누적)
(단위 : %, 출처 : 한국벤처투자)

구분	정책 기관	금융 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018.1~12	11,564	6,956	4,150	3,114	2,431	1,692	331	83	30,320
누적	85,026	35,789	30,186	25,264	23,926	9,437	2,788	6,889	219,305

표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
(2018년 1~12월,
누적,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벤처투자)

조합원구분	상세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 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3. 모태 출자펀드 투자

■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2018년 1월~12월)

2018년 한 해 동안 320개 모태 출자펀드가 1,121개 기업에 총 2조 4,341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였다. 전년 동 기간 대비 금액 기준으로 36.4% 증가하였으며, 기업 수 기준으로는 16.6% 증가하였다.

그림3]
최근 5년간 누적
투자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 2018년 12월말 기준 데이터이며, 2014년~2017년 투자금액은 해당 기말시점 고정금액

** 투자기업 수는 중복을 제거한 수치

■ 투자금액 상위 기업 및 업종별 투자 현황(2018년 12월)

2018년 12월 한 달간,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상위 10개 기업은 평균 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 당 1.4개 펀드가 14.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용물질/의약품 21.1%(489억원), 소프트웨어 12.7%(294억원), 게임소프트웨어 9.7%(224억원), 영상(프로젝트 포함) 7.5%(174억원), 도소매업 7.2%(167억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바이오 관련 투자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유형별로는 RCPS 55.4%, 보통주 21.0%, CB 12.2%, 프로젝트 9.0%, BW 2.4%의 비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00000	게임소프트웨어	3	100
2	00000	의료용물질/의약품	2	70
3	00000	금융	1	63
4	00000	일반기계	1	60
5	00000	의료용물질/의약품	3	60
6	00000	게임소프트웨어	1	50
7	00000	소프트웨어	3	45
8	00000	도소매업	4	45
9	00000	소프트웨어	2	44
10	00000	소프트웨어	2	40

표3]
2018년 12월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개, 억원,
출처 : 한국벤처투자)

■ 업력별 신규투자(2018년 1월~12월)

2018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9,002억원(37.0%),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7,951억원(32.7%),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7,388억원(30.4%)이 투자되었다. 반면, 업체 수* 기준으로 업력별 신규투자를 살펴보면 초기기업(41.5%), 중기기업(34.7%), 후기기업(23.8%)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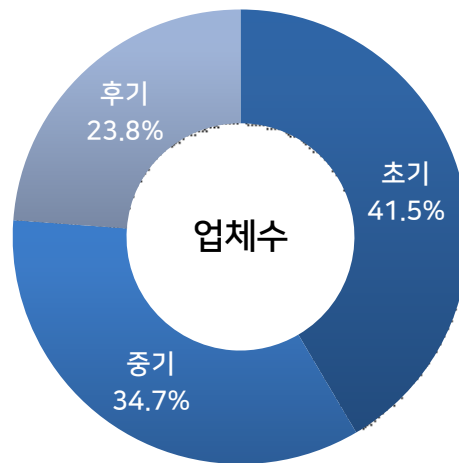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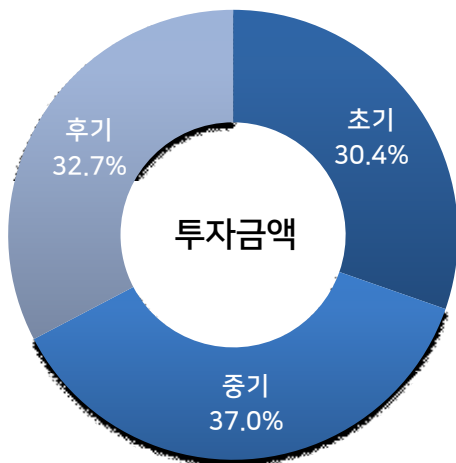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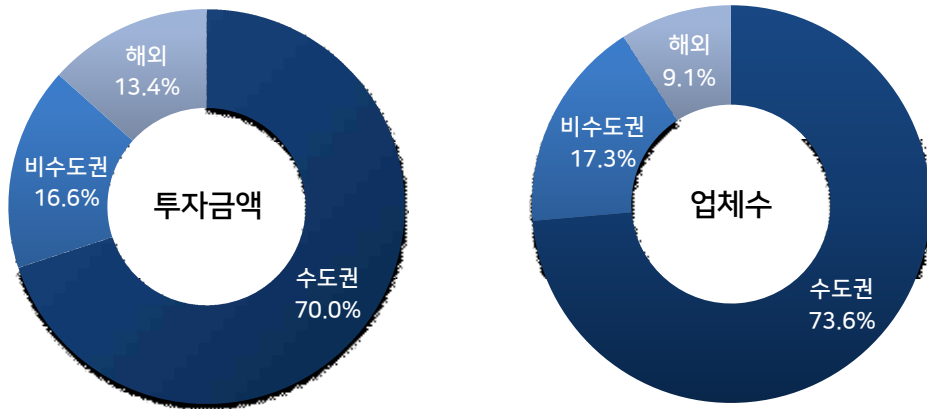
그림4]
2018년 1월~12월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출처 :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수 1,121개(조합간 업체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별 신규투자 및 업종별 신규투자(2018년 1월~12월)

2018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17,034억원(70.0%)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4,050억원(16.6%),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3,257억원(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 투자가 11,47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경기 소재 기업 투자 4,976억원, 대전 소재 기업 투자 1,402억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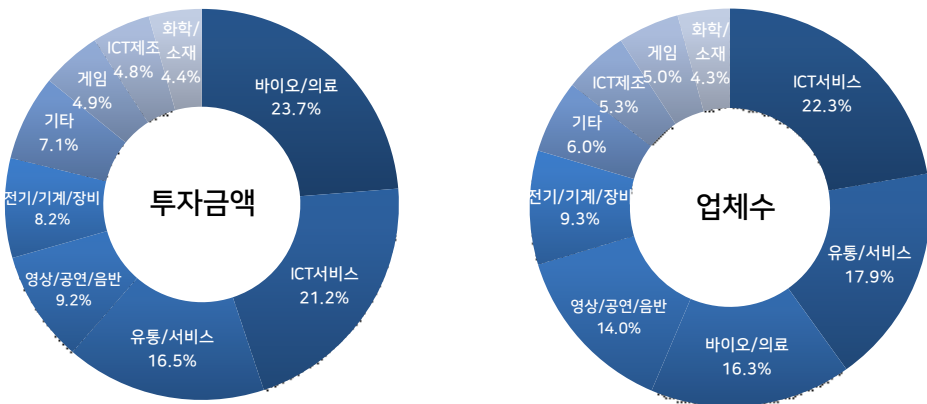
그림5
2018년 1월~12월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출처 :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수 824개(조합간 업체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2018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의료 업종으로 총 4,269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3.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ICT 서비스 업종 3,968억원(21.7%), 유통/서비스 2,990억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ICT서비스(22.1%), 바이오/의료(15.8%), 유통/서비스(15.5%)순이다.

그림6
2018년 1월~12월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출처 :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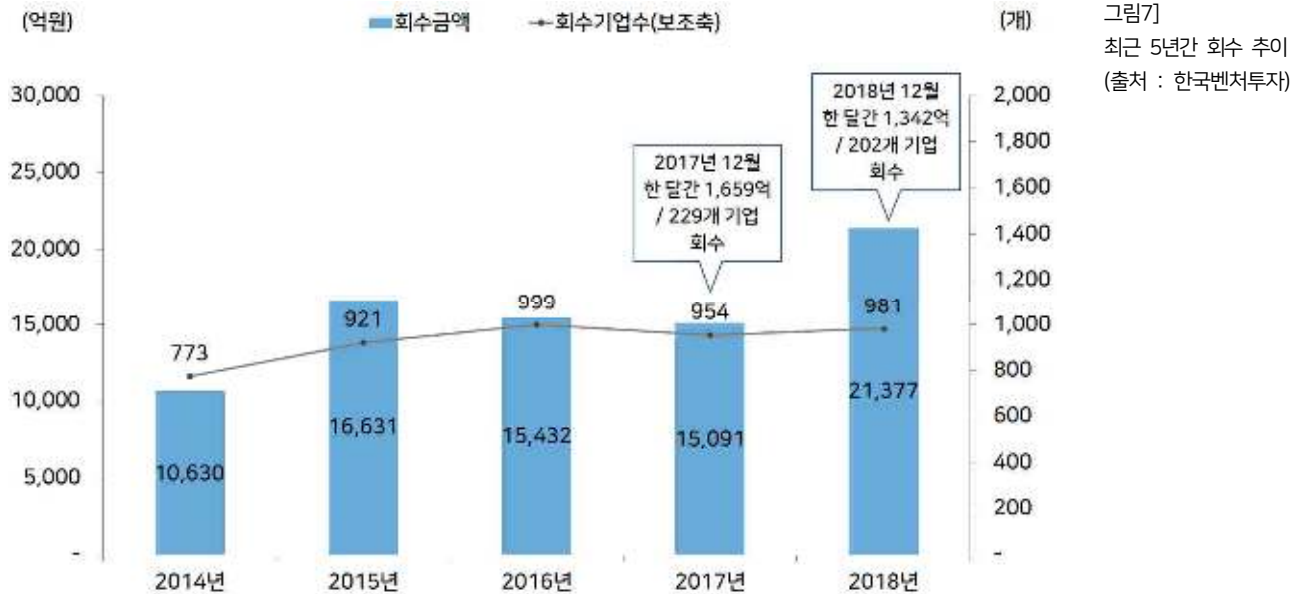


* 총 업체수 1,121개(조합간 업체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4. 모태 출자펀드 회수

■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2018년 1월~12월)

2018년 한 해 동안 331개 모태 출자펀드가 981개 기업에 대해 총 2조 1,377억원 (회수원금 8,370억원, 회수수익 1조 3,007억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2.6배의 수익 배수를 기록했다. 전년 동 기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41.7% 증가하였으며, 기업 수 기준으로는 2.8% 증가하였다.



* 2018년 12월말 기준 데이터

■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2018년 12월)

2018년 12월 한 달간, 각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은 155억원, 최대 회수 수익 배수는 33.1배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16.9%(226억원), 의료용물질/의약품 12.3%(166억원), 운송장비/부품 11.6%(156억원), 반도체/전자부품 9.3%(124억원), 정보서비스 7.7%(104억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져 SW와 바이오 관련 투자의 회수가 주를 이루었다.

■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2019년 1월)

2019년 1월 말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기업 25개사 중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은 10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의약품/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5개사로 지난해에 이어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전체 공모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표4]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출처 : KRX
상장공시시스템)

투자기업명	시장구분	기업 설립년월	진행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지노믹트리	코스닥	2000.11	심사 승인	후성유전학 암 마커 개발, DNA칩 분석
아이스크림에듀	코스닥	2013.5	심사 승인	초등학생 자기주도학습 교육 서비스
아모그린텍	코스닥	2004.1	심사 승인	자성재료, 나노잉크, 인쇄전자, 나노섬유
포인트엔지니어링	코스닥	1998.5	심사 승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
젠큐릭스	코스닥	2011.9	심사 중	유방암 예후진단키트
수젠텍	코스닥	2011.12	심사 중	체외진단제품(임신/배란진단키트), 당화혈색소 측정기기
압타바이오	코스닥	2009.7	심사 중	압타머의약품 및 NOX 저해제 개발
마이크로디지털	코스닥	2002.8	심사 중	바이오 연구 장비, 체외진단 자동화 장비
바디프랜드	코스피	2007.3	심사 중	안마의자, 라텍스 유통
더블유게임즈	코스피	2012.4	심사 중	페이스북 소셜게임

* SPAC합병 제외, 이전상장 포함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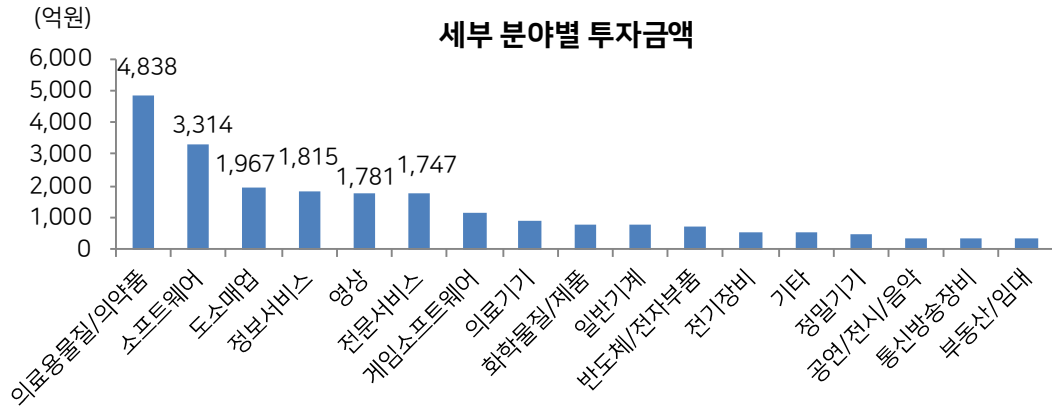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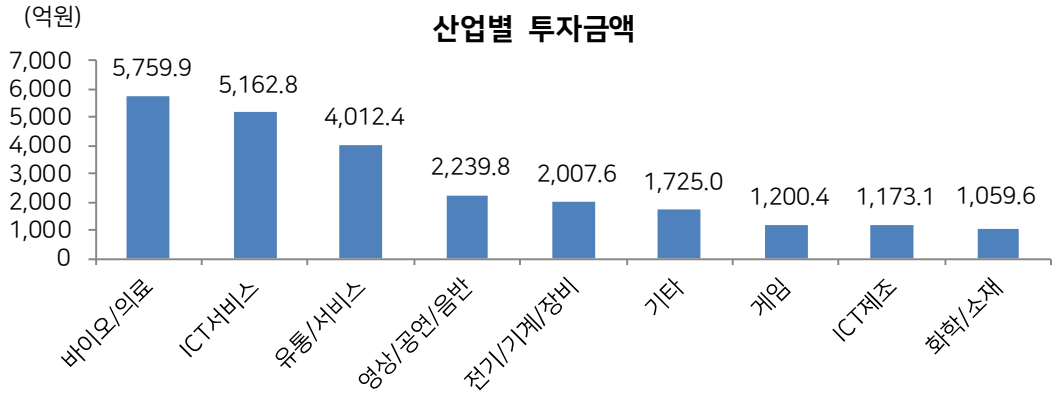
해당 보고서는 매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호에서는 2018년 4분기(10~12월) 및 온기(1~12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1. 2018년 산업별 투자 동향

2018년 모태 출자펀드는 1,121개(16.6%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2조 4,341억원(36.4%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태펀드 출범 이후 최대치이며, 모태 출자펀드 누적 투자금액의 16.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연간 투자금액이 급증한 것은 2017년 추경 출자사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평균 투자금액은 업체당 21.7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 상승에 힘입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작년 평균 투자금액(18.6억원)과 올해 모태 출자펀드 기업별 투자금액의 중위값(11.2억원)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그림1]
2018년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출처 : 한국벤처투자)



산업별로는 바이오/의료(5,760억원, 79.7%YoY), ICT서비스(5,163억원, 28.6% YoY) 산업이 절대적인 투자규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메가딜(기업 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원 이상)은 총 29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하였으며, 이 중 11개의 업체가 바이오/의료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일 기업 투자 규모로는 공유오피스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체가 2018년 최고 투자 금액을 유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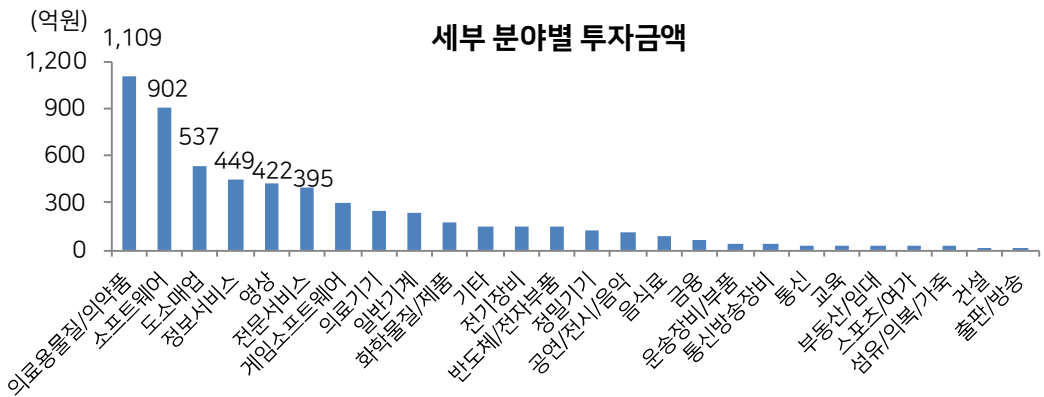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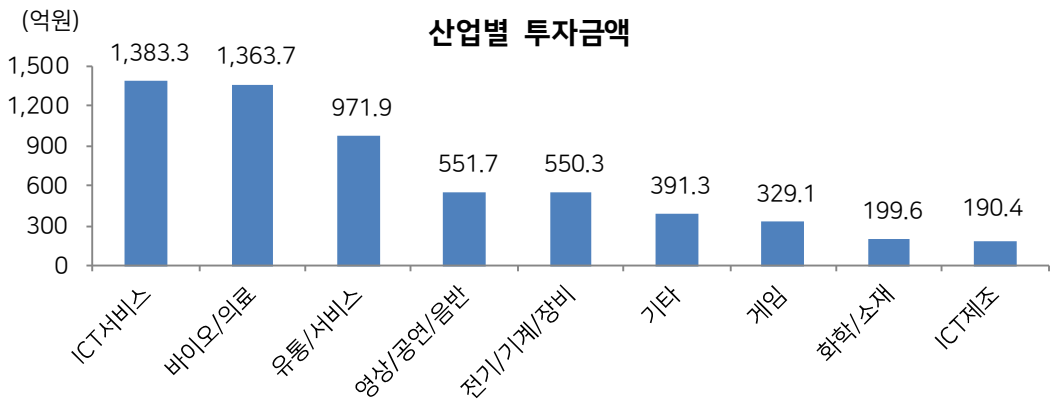
분류	2018년	2017년	YoY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 합계	24,340.6	17,841.5	36.4%	1,121	21.7
바이오/의료	5,759.9	3,205.6	79.7%	197	29.2
의료기기	896.4	600.8	49.2%	49	18.3
의료시설/서비스	25.0	26.8	-6.8%	2	12.5
의료용물질/의약품	4,838.5	2,578.0	87.7%	150	32.3
ICT서비스	5,162.8	4,015.2	28.6%	269	19.2
소프트웨어	3,314.1	2,509.9	32.0%	181	18.3
정보서비스	1,815.3	1,473.3	23.2%	110	16.5
통신	33.4	31.9	4.5%	3	11.1
유통/서비스	4,012.4	3,408.7	17.7%	216	18.6
교육	136.8	33.7	306.1%	15	9.1
도소매업	1,966.7	1,877.7	4.7%	114	17.3
숙박/음식업	130.2	7.0	1759.6%	4	32.6
운수	31.5	223.3	-85.9%	4	7.9
전문서비스	1,747.3	1,267.1	37.9%	84	20.8
영상/공연/음반	2,239.8	2,049.5	9.3%	169	13.3
공연/전시/음악	341.4	399.3	-14.5%	27	12.6
영상	1,781.3	1,604.2	11.0%	136	13.1
출판/방송	117.2	45.9	155.3%	7	16.7
전기/기계/장비	2,007.6	1,550.3	29.5%	112	17.9
운송장비/부품	299.4	315.6	-5.2%	15	20.0
일반기계	750.2	620.2	21.0%	48	15.6
전기장비	517.3	325.9	58.7%	35	14.8
정밀기기	440.7	288.6	52.7%	22	20.0
기타	1,725.0	997.3	73.0%	72	24.0
건설	98.0	13.1	647.6%	3	32.7
금융	317.1	314.9	0.7%	8	39.6
기타	516.6	260.0	98.7%	26	19.9
목재/종이/인쇄/가구	2.0	30.0	-93.3%	1	2.0
부동산/임대	327.0	80.0	308.7%	7	46.7
섬유/의복/가죽	135.0	159.0	-15.1%	10	13.5
에너지/자원	60.0	15.9	277.4%	2	30.0
음식료	269.3	124.4	116.5%	17	15.8
게임	1,200.4	1,073.9	11.8%	60	20.0
게임소프트웨어	1,157.9	1,055.4	9.7%	55	21.1
스포츠/여가	42.5	18.5	129.7%	5	8.5
ICT제조	1,173.1	880.1	33.3%	64	18.3
반도체/전자부품	712.5	665.0	7.1%	38	18.8
영상음향기기	29.0	19.7	47.3%	4	7.3
컴퓨터/주변장치	91.5	140.1	-34.7%	3	30.5
통신방송장비	340.1	55.3	515.0%	20	17.0
화학/소재	1,059.6	660.9	60.3%	51	20.8
고무/플라스틱	72.0	15.0	380.0%	6	12.0
금속	147.8	33.9	335.4%	7	21.1
비금속	40.0	96.5	-58.6%	3	13.3
화학물질/제품	799.8	515.4	55.2%	36	22.2

표1]
2018년
모태 출자펀드
연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출처 : 한국벤처투자)

2. 2018년 4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18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381개(15.5%QoQ)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5,931억원(-4.5%QoQ)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 출자펀드의 4분기 누적 투자금액은 2조 4,3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36.4%YoY). 산업별로는 ICT서비스(1,383억원, -10.6%QoQ), 바이오/의료(1,364억원, 1.7%QoQ)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1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전분기와 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통/서비스(972억원, 21.2%QoQ)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1천억원을 하회하였으나 게임(329억원, 63.9%QoQ) 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단일 기업 투자 규모로는 ICT서비스 산업의 소셜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4분기 최고 투자 금액을 유치하였다.

그림2
2018년 4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출처 : 한국벤처투자)



4분기 전체 평균 투자금액은 15.6억원으로 2018년 누적 21.7억원 수준을 하회하였다. 4분기 메가딜 (기업 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원 이상)은 전 분기 대비 크게 줄어 2건을 기록하였으며, 각각 소셜서비스 플랫폼, 애드 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업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1년 연속 ICT서비스 산업으로 총 89개의 업체에 평균 15.5억원이 투자되었다. 4분기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게임 분야로 15개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3분기 평균 투자금액 대비 7.6억원 증가한 평균 21.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투자금액의 상승 원인은 100억원 이상의 메가딜 1건을 포함 모바일 게임 제작, 인포테인먼트 관련 SW 업체 등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2]
 2018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출처 : 한국벤처투자)

분류	투자금액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 합계	5,931.4	381	15.6
ICT서비스	1,383.3	89	15.5
소프트웨어	901.7	65	13.9
정보서비스	449.2	30	15.0
통신	32.4	2	16.2
바이오/의료	1,363.7	70	19.5
의료기기	249.8	18	13.9
의료시설/서비스	5.0	1	5.0
의료용물질/의약품	1,108.9	51	21.7
유통/서비스	971.9	76	12.8
교육	30.4	6	5.1
도소매업	536.5	38	14.1
운수	10.0	1	10.0
전문서비스	395.1	31	12.7
영상/공연/음반	551.7	72	7.7
공연/전시/음악	114.6	13	8.8
영상	422.1	58	7.3
출판/방송	15.0	2	7.5
전기/기계/장비	550.3	31	17.8
운송장비/부품	39.4	2	19.7
일반기계	236.1	13	18.2
전기장비	147.1	15	9.8
정밀기기	127.7	6	21.3
기타	391.3	21	18.6
건설	20.0	1	20.0
금융	63.3	1	63.3
기타	155.0	8	19.4
목재/종이/인쇄/가구	2.0	1	2.0
부동산/임대	30.0	2	15.0
섬유/의복/가죽	22.0	2	11.0
에너지/자원	5.0	1	5.0
음식료	94.0	6	15.7
게임	329.1	15	21.9
게임소프트웨어	299.1	13	23.0
스포츠/여가	30.0	2	15.0
화학/소재	199.6	13	15.4
고무/플라스틱	10.0	1	10.0
비금속	15.0	2	7.5
화학물질/제품	174.6	10	17.5
ICT제조	190.4	15	12.7
반도체/전자부품	144.5	9	16.1
영상음향기기	10.0	1	10.0
통신방송장비	36.0	6	6.0

2018년 4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출처 : 한국벤처투자

ICT서비스	#모바일익명SNS #미들웨어개발판매 #중고거래플랫폼 #인테리어비교견적증개플랫폼 #응용 SW개발공급업 #3DScanningSW/서비스 #웨딩플랫폼 #멀티미디어통신유통플랫폼 #SW 솔루션 #CPS #모바일게임 #전자책구독서비스플랫폼 #의료영상분석솔루션 #IC카드_RFID카드 #Mobile_Live_Streaming서비스 #숙박정보포털 #모바일특화마케팅솔루션 #차량용앱플랫폼 #금융전문포털사이트 #P2P대출 #B2C상담솔루션 #SaaS기반_IT솔루션 #정신건강_SW #클라우드기반번역플랫폼 #전동킥보드공유서비스 #ADAS_SW #방송플랫폼 #그래프데이터 베이스개발연구 #영상맞고딩교육콘텐츠 #핀테크 #다이어트정보제공앱 #VR영상플랫폼 #블록 체인기반SCM플랫폼 #개인자산관리앱 #원부자재IT플랫폼 #공정불량분석SW #맞춤형민화 미디어 #데이터보안 #특수스피커 #가상화솔루션 #에너지관리솔루션 #인공지능_맞춤형뇌질환 치료/수술가이드SW #데이터품질관리솔루션
바이오/의료	#세파계항생제_원료의약품 #유전자진단 #치매치료제 #의료용진단기기 #파킨슨병진단용웨어 러블디바이스 #뇌진증진단및치료제 #바이오베터 #미용의료기기 #바이오고분자소재기반의료 기기 #당뇨병뇌졸중신약 #재생성모발및피부재생물질 #방사성의약품 #우울증및파킨슨병치료제 #서방형인터페론 #뇌신경회로망분석 #피부진단기기 #치과용영상진단장비 #경옥고 #CAR-T 세포치료제 #감염질환백신개발 #무혈청줄기세포배양배지 #의료영상분석용SW #녹내장치료 #항체의약품 #면역항암제 #항체신약개발 #배지 #표적항암제용동반진단기술 #NGS기반체외 진단의료기기 #인공치아용세라믹소재 #생물학적제제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압타머의약품 #초고속무약품마취기기 #면역세포치료제 #당뇨체외진단기기 #대사항암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임상연구대행 #의학검사분석업
유통/서비스	#e-커머스 #패션및뷰티_전자상거래 #환경컨설팅 #의류 #컨텐츠제작기획 #유기농여성위생용품 #광고대행 #바이오테크 #농산물직거래플랫폼 #피트니스센터 #산후조리원 #애슬레저웨어 #P2P금융플랫폼 #모바일잠금화면광고플랫폼 #E-스포츠매니지먼트 #반도체개발소자 #헬스 뷰티커머스 #P2P부동산담보대출중개 #웨딩플랫폼 #이사정보 #반려동물용품소매 #산업데이 터예측솔루션 #해외진출런칭유통 #초중학생학력평가 #스포츠컨텐츠
전기/기계/장비	#오일탱커선 #잠수함탑재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 #고출력레이저 #정밀기기 #디지털사아니지 LED #태양광모듈 #AR용렌즈 #ESS배터리팩 #OLED_FlexibleDisplay장비 #이차전지양극소재 #웨이퍼검사장비 #레독스흐름전지 #3차원세포배양 #전기버스용배터리팩 #디스플레이검사 장비 #PE강관
게임	#모바일비즈니스플랫폼 #모바일게임 #차량용앱플랫폼 #휘트니스센터 #인플루언서마케팅 플랫폼
기타	#공유주방 #해외자산관리플랫폼 #건강기능식품 #헬스뷰티커머스 #크래프트맥주 #산업처리 공정제어장비 #애슬레저웨어 #즉석판매가공업
화학/소재	#수용성세라미이드 #마스크팩ODM #LCD첨가제 #ACF도전성소재 #OLED중간체
ICT제조	#SAW필터 #이동통신TV수신용칩 #모바일솔루션 #고효율전력증폭기 #광통신폴리머재료제조업 #전기변색소자
영상/공연/음반	#기획매니지먼트 #스포츠매니지먼트 #방송콘텐츠제작 #영화VFX제작

3. 글로벌 벤처 투자 트렌드 분야 점검

2018년 4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산업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번 KVIC MarketWatch 투자 산업 트렌드 분석에서는 2019 CES에서 화제가 되었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 4분기 MarketWatch 점검 분야 -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이번 2019 CES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전시 중 하나는 모빌리티였다. 벤츠, BMW, 도요타, 현대 등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Google, Mobileye, InnoViz Technologies, NPX와 같은 IT, LiDAR(레이저를 통해 사물과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반도체 업체도 모두 미래의 모빌리티를 주제로 전시에 뛰어 들었다. 이는 곧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5년~2030년은 머지않은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25년 자율주행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더 이상 운전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아마도 대부분은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 동안 부수적이라고 여겼던 활동(생산적인 활동, 또는 즐거운 활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탑승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그림3
2019 CES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
(좌 : 네이버, 중간 :
토요타, 우:
LeddarTech,
출처 : 한국벤처투자,
TRI)



Information + Entertainment = Infotainment

인포테인먼트는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자동차가 제2의 생활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주목받는 키워드이다. 내비게이션, 계기판과 같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부터 오디오, 디스플레이, 더 나아가 외부와 연결이 가능한 장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림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명도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인포테인먼트는 우수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달려드는 키워드가 된지 오래이지만, 아직 까지도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ICT 기업보다 더 ICT를 잘하는 기업'을 혁신과제로 내세웠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쟁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두 가지 - ① 자율주행차의 대중화, ② ICT기업의 사업 영역 확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테인 먼트 관련 M&A, 제휴 현황을 통해 각 기업의 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한다.

■ 인포테인먼트가 주목받는 이유 ① 자율주행차의 발전

‘편리함’에 대한 갈망 > 운전의 즐거움

경제학에서는 흔히 ‘노동=열등재’라고 이야기한다. 편리함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결국 자동차까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의 기계에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DAS(운전자보조시스템), Telematics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외부통신 서비스), V2X시스템(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을 구현하여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하나씩 추가되고 있다. 의료기술에 발달에 따라 높아지는 기대수명(고령화 사회 도래)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SAE)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의 발전 단계는 0~5단계까지 분류된다. 현재 상용 자동차에는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적용 가능한 상태이며, 3단계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표3]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단계
(출처 :
미국도로교통안전국)

책임소재	레벨	자동화수준	설명
운전자 책임	Level0	비자동화	운전자가 모든 동작에 관여하는 비자동화 단계
	Level1	운전자 보조	자동긴급제동장치(AEB)와 크루즈컨트롤(ACC) 등 운행시 운전 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단계
	Level2	부분 자동화	방향 조작, 속도 조절과 같은 자동화는 가능하나 운전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단계
↓	Level3	조건부 자동화	주행 전반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화할 수 있지만 유사시 시스템의 알람에 따라 운전자의 조작 준비가 필요한 단계
	Level4	고도 자동화	정해진 조건하에서 모든 기능이 자동화되지만, 아직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단계
	Level5	완전 자동화	모든 조건하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
제조사 책임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은 본래 소재, 부품, 정비, 운송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만큼 고용창출 효과도 높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9년 Waymo(구글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는 주정부 자율주행 합법화, 연방정부의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자율주행차 운행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캘리포니아, 네바다 주에서 자율주행이 합법화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총 33개 주에서 자율주행 입법이 완료되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기술적 지침과 연방 주의 역할을 담은 자율주행 가이드(2016-V1, 2017-V2)를 배포하기도 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제 협약			비엔나 협약 개정*	EU자율주행 로드맵		
미국	네바다,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합법화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하와이 등 (2017년 미국 33개 주에서 자율주행 입법 완료)			NHTSA 자율주행 가이드(V1)	미연방 자율주행법 제정
일본			자율주행 로드맵**		자동주행 공도실증시험 가이드라인	원격형자동 운전시스템 공도실증시험에 관한 도로사용 허가신청 취급기준
독일			비엔나 협약	자율주행 로드맵		도로교통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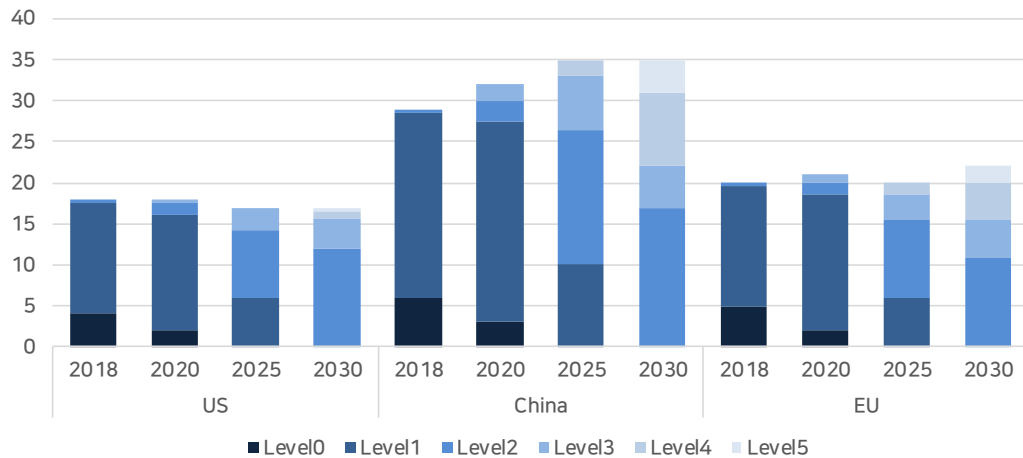
표4] 국가별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 (출처 :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18.10, 과기부·한국과학기술 평가원)

* (기존) 모든 이동 중 자동차에는 운전자 필요 → (개정) 운전자의 통제 가능성 전제로 자율주행 허용
 ** 이후 매년 순차로 발표, 2017년 로드맵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자동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비중은 증가할 전망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율주행 레벨이 3단계를 넘으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보고서에서는 2030년 무렵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wC는 중국과 유럽연합에서 2030년 즈음 레벨3 이상의 차량이 전체 판매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레벨4~5에 해당하는 차량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에서 각각 10%, 35%, 2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5
Autonomous
Vehicles (In Total
New Vehicle
Sales)
(단위 : 백만대,
출처 : PwC
AutoFacts)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차량용 센서 판매 증가

자율주행차는 그 자체만으로 다양한 기술의 집약체이다. 동력원에 따라 엔진·구동계 관련 부품 또는 2차 전자·인버터 같은 전기차 부품을 구축한 후, 사람의 감각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까지 탑재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차량용 센서 시장은 그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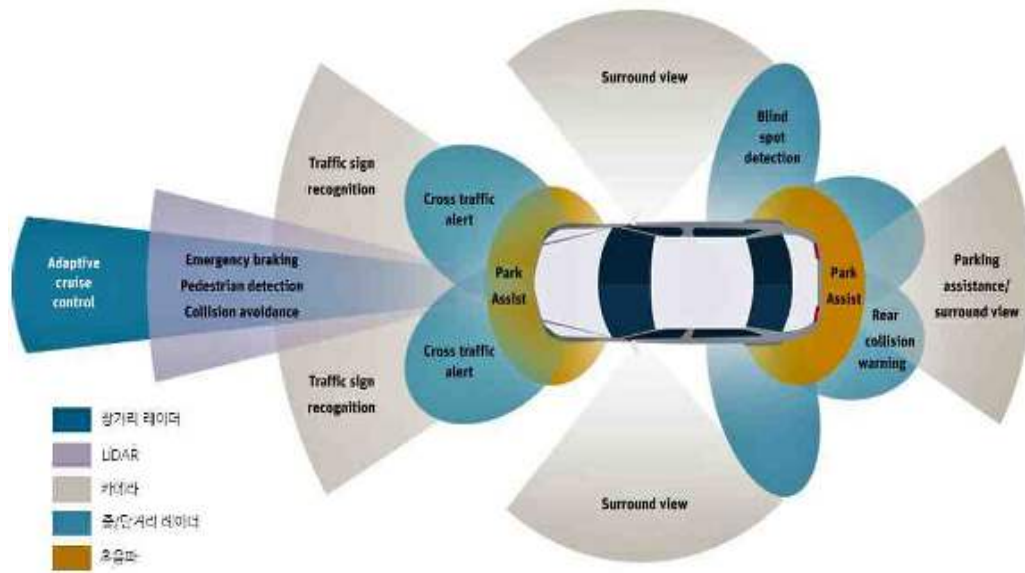


그림6] ADAS 구현 형태 (출처 : ANSYS.com)

사람의 감각기관처럼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각종 센서는 주로 ADAS 시스템에 활용되며 레이더, LiDAR, 카메라, 초음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센서 판매는 2017년 약 8,959억엔(약 9.2조원)을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판매 금액은 3.7배 가량(26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긴급 제동 브레이크, 보행자 감지, 충돌 회피 역할을 하는 ‘레이저/LiDAR’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2030년까지 196배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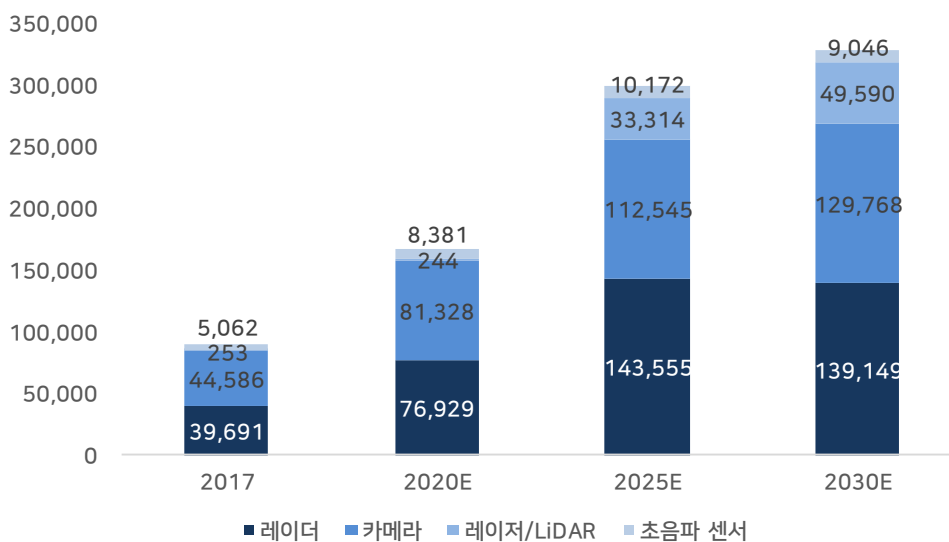


그림7] ADAS 및 자율주행용 센서 글로벌 시장 규모 (단위 : 천만엔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글로벌 오토 뉴스 재인용)

■ 인포테인먼트가 주목받는 이유 ② ICT 기업의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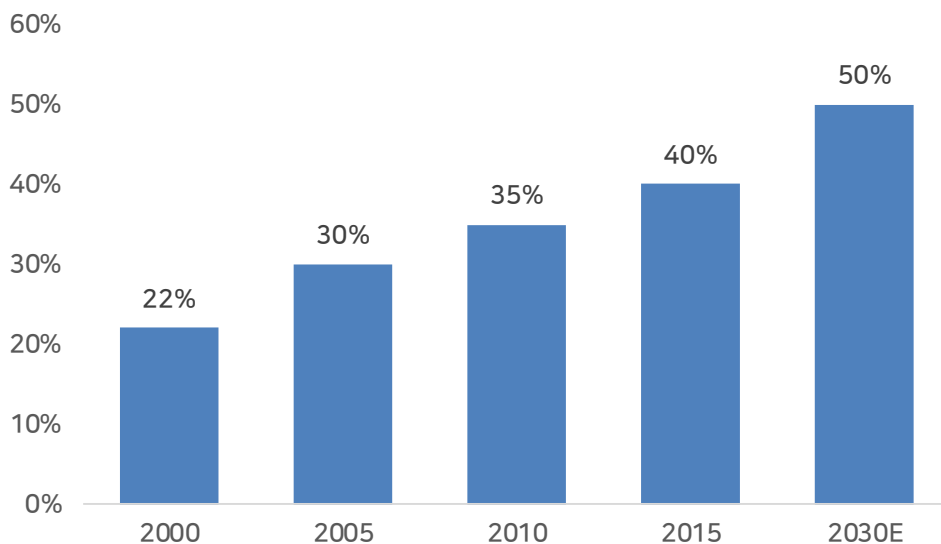
자동차와 ICT의 만남 - 자동차의 전장화

자동차 산업 주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폭스바겐, 도요타, 르노, 닛산, 현대기아, GM, 포드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자동차를 떠올려본다면 엔진, 변속기, 클러치를 가진 내연기관자동차가 가장 먼저 생각날지 모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기차는 엔진 기반의 ‘기계장치’ 자동차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84년에 영국의 토마스 파커가 전기차를 개발하였고 1886년에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1891년에 최초로 시작된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후 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전기자동차보다 내연기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기자동차는 소비자의 선택에서 뒷전으로 물러났다.

인포테인먼트 등 전장 시장의 급격한 성장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는 자동차는 ‘기계장치’로서의 정체성밖에 없을까? 굳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현재 탑승하는 자동차는 ‘기계장치’이면서 ‘전자장치’이다. 이는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8]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전장 부품의 비중
(출처 : 프리스케일,
조선일보 기사
재인용)



최근 자동차에 자율 주차 기능 및 레벨 2 정도의 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되면서 자동차의 전장화(電裝化)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각국 정부의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중지 관련 정책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국가	발표내용	발표 시점
영국	2040년부터 모든 가솔린과 경유 차량의 영국 내 신규 판매 중단	2017년 7월
프랑스	2040년까지 가솔린과 경유 차량 판매 금지	2017년 7월
독일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통과	2016년 10월
네덜란드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고 순수 전기차만 판매 허용	2016년 8월
노르웨이	2025년부터 친환경차량의 100% 운행 목표	2016년 8월
인도	2030년부터 신규 판매 차량 전부를 순수 전기차로 교체 목표	2017년 5월

표5]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중지 관련 정책 (출처 : Samjong Insight 제56호 「미래 자동차 권력의 이동」)

자동차 산업의 플레이어로서 기존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ICT 기업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 주행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보고 많은 ICT 기업들이 본인들의 강점을 살려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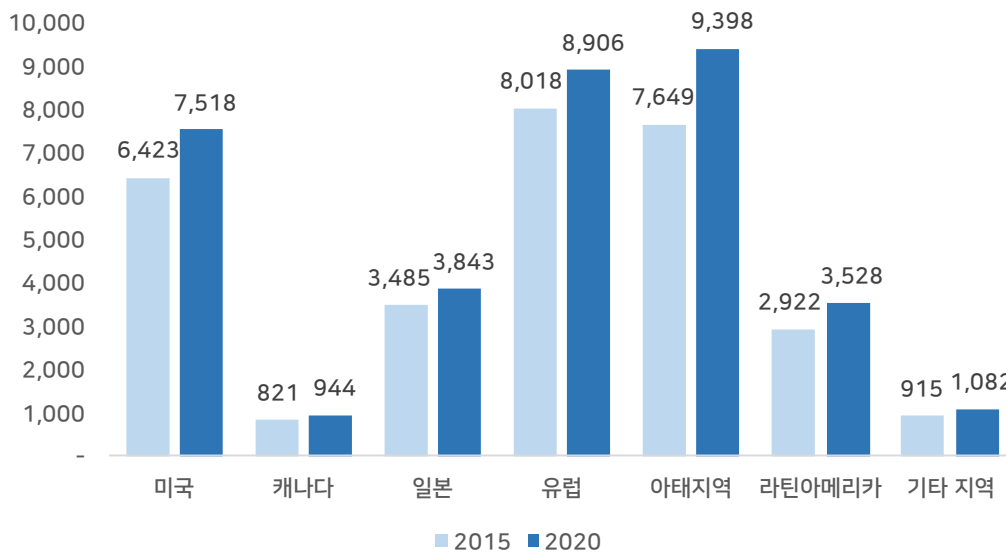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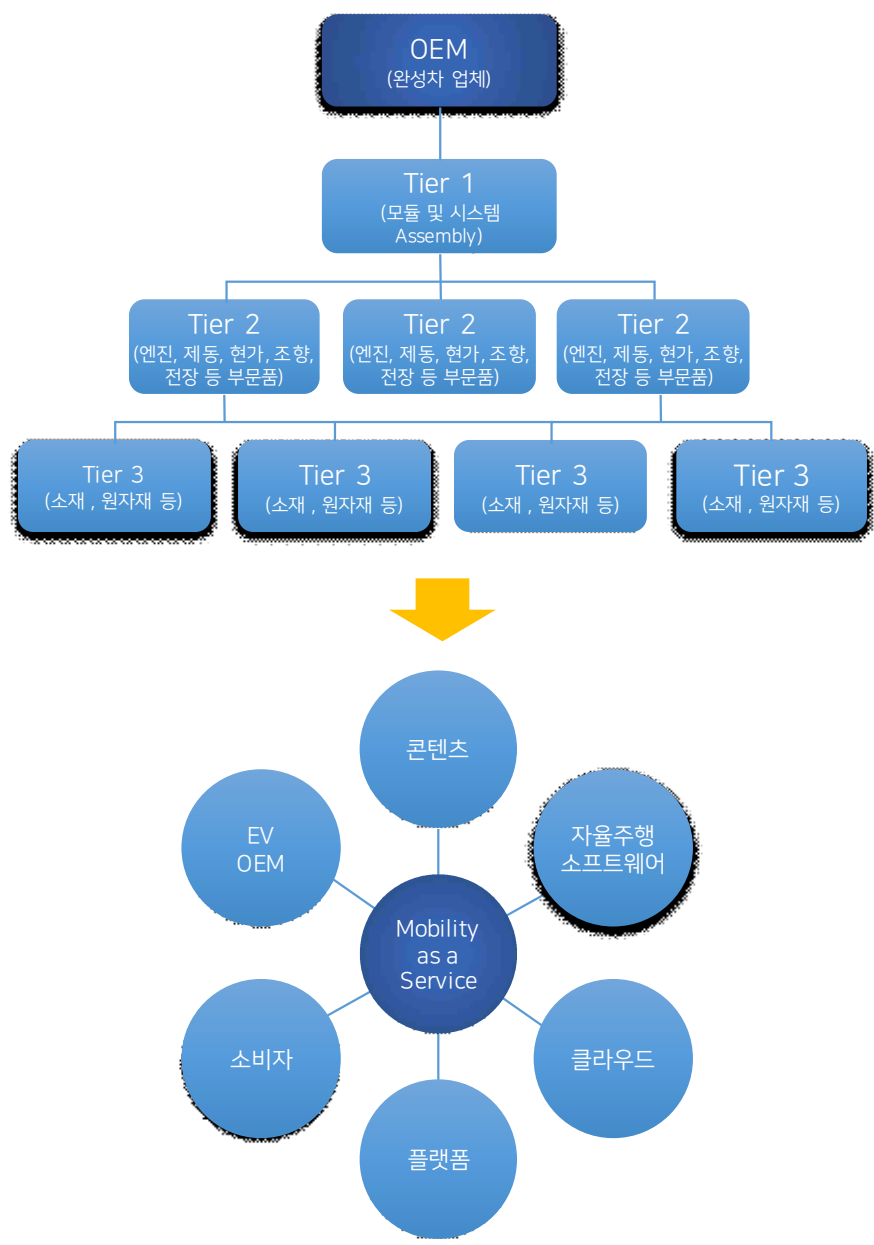


그림9] 글로벌 인포테인먼트 성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출처 : Global Industry Analysts, 코트라에서 재인용)

ICT 기업들 중 LG처럼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전장부품 시장으로 바로 뛰어드는 기업도 있지만, 대다수 ICT 기업은 전장부품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기존의 AVN(Audio/Video/Navigation)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14년 애플이 iOS 기반 CarPlay를 개발하여 세상에 내놓은 이후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기반의 Android Auto를,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in the car를 같은 해에 연이어 출시하였다. 네이버도 2017년 AWAY를 출시하였다. SK텔레콤도 기존의 T맵과 자사의 인공지능 ‘누구’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자사의 기존 내비게이션을 통합하여 원 내비를 내놓았다.

그림10]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과 미래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출처 : Samjong Insight 제56호 「미래 자동차 권력의 이동」)



인수 합병 이후 실제로 삼성전자는 삼성과 하만이 협업하여 만든 전장 플랫폼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CES 2018, 2019에서 선보였다. 디지털 콕핏은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디오 및 조명 컨트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패키지로 통합한 제품이다.

2018년에 총 3개였던 디스플레이가 2019년에는 총 6개로 늘어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전방에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존 전장업체는 물론 ICT 기업, 스타트업들이 합종연횡으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하만을 품은 삼성은 추후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그림12]
CES 2018에서
공개된 디지털 콕핏
(출처 : 삼성전자)



그림13]
CES 2019에서
공개된 디지털 콕핏
(출처 : 삼성전자)



② 2019 인포테인먼트 관련 MOU

SK텔레콤-하만-싱클레어의 MOU

SK텔레콤과 하만,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싱클레어가 미국 전역의 운전자 대상 차량 내에서 방송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 HD맵 실시간 업데이트, 차량통신기술(V2X, Vehicle to Everything)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19년 1월 10일 MOU를 체결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SK텔레콤의 미디어 기술과 저지연 데이터 송/수신 기술, 하만의 전장 경쟁력, 싱클레어의 방송 인프라를 결합하여 미국 내 카 라이프(Car Life)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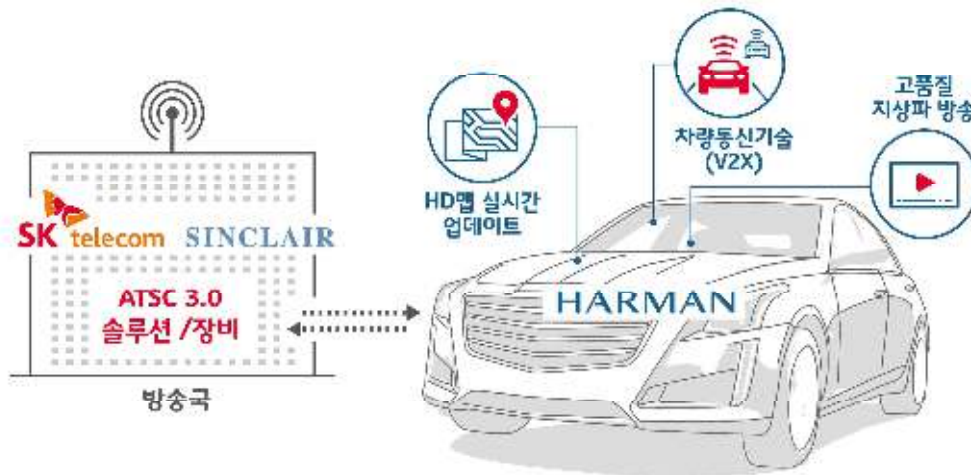


그림14
3사 플랫폼 협력
방안
(출처 : SK텔레콤)

LG전자-마이크로소프트의 MOU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2019년 1월 7일 MOU를 체결했다. LG전자는 이를 발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활용하여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의 경쟁력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③ 차량용 반도체를 잡아라 -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NXP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카의 핵심이 될 부품 중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이다. 모든 스마트폰에 반도체칩이 내장되어 있듯이 미래 자동차가 운송수단 이상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탑재가 필수적이다.(지금보다 10배 더 많은 2,000개 가량의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리서치 기관인 IHS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13~2020년 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응용분야는 인포테인먼트 분야로 2020년경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스마트폰 수요 정체 및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던 업체들은 점차 차량용 반도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스마트폰 반도체와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 첫째, 2~3년에 한번 씩 교체되는 스마트폰과 달리 차량은 교체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수명을 지녀야한다. 둘째, 실외의 극한 온도, 습도에서 모두 작동 가능해야한다. 셋째,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워야한다. 이처럼 기존 생산 반도체와 기술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 또한 자사 보유 차량용 반도체 기술 홍보에 뛰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아쉽게 마무리되었던 퀄컴의 NXP 인수 시도이다. 퀄컴은 2016년 차량용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 기업 NXP를 약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함으로써 스마트폰 반도체칩 위주의 사업 영역을 탈피하고자 했다. 삼성 또한 NXP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주목하는 이슈였으나, 중국 당국의 미승인으로 계약이 불발된 바 있다.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전망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성장에 의구심을 갖는 회의주의자들은 종종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드라이빙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동이 빈번하고, 교통 혼잡이 극심하며, 딱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심에서 사람들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을 것이다. 주행시간 내내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난다면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들은 차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종종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더 이상 단순히 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의 집합체가 아닌 ‘서비스의 집합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가치가 바뀌면서 세련미만을 강조하는 세단보다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실험적 자동차의 생산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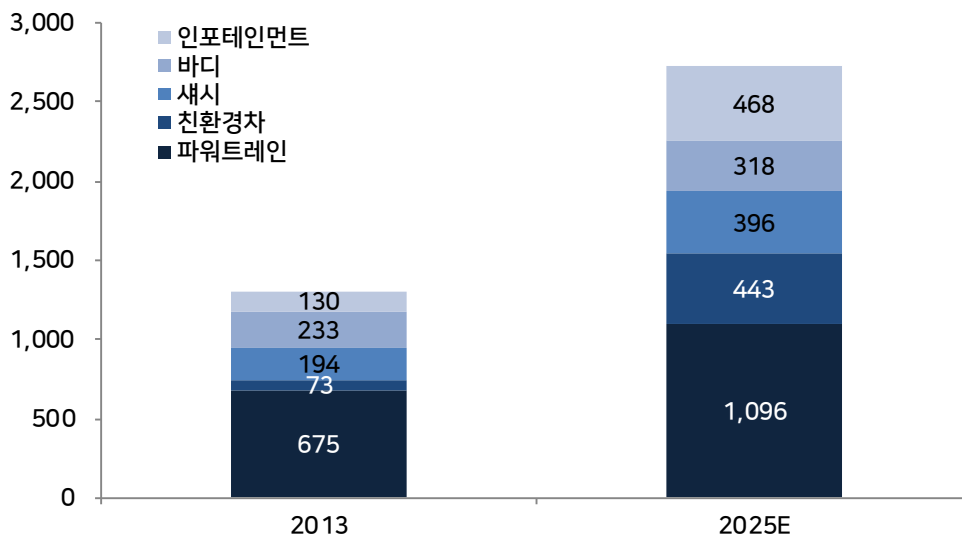


그림15]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 전망
(출처 : Fuji
Chimera Research
단위 : 억달러)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술제휴, 인수 등의 사업영역 확대 경쟁이 활발하다.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기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짐에 따라 자체적인 기술개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 거래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자동차 산업 전체 M&A 건수의 80.9%를 차지하였다. 특히 인수 대상 업종 중 정보통신 산업은 절대적인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CARG)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국내 자동차 및 ICT 기업의 인포테인먼트 관련 경험은 해외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OS 소프트웨어 분야는 글로벌 IT업체들이 주도하는 경쟁으로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틈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17년 하반기에 인수하며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고, LG전자 또한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등 통합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GM,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에 시스템을 공급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음성인식 솔루션, 차량용 웹브라우저 관련 중소기업도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다.

비록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인포테인먼트는 앞으로도 국내 관련 기업 모두에게 포기하기 힘든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인포테인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는 기존 하드웨어만을 생산하는 반쪽짜리 업체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국내 가전 및 ICT 기업은 이미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각 기업, 이들을 서포트하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정부,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에 따라 차량의 안전과 편리함 쪽으로 선호를 옮겨가는 소비자의 상황이 맞물려 인포테인먼트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VIC MarketWatch**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소개

벤처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오픈한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번호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 1월말까지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정보를 담았습니다.



■ 기업이 직접 펀드를 찾을 수 있는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한국벤처투자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인들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서비스를 2월 13일 정식 오픈하였다(fundfinder.k-vic.co.kr).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는 창업초기, 지역, 여성, 재기지원 등 21개 유형으로 출자펀드를 분류하여 기업이 상황에 맞게 펀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기업인들은 21개 유형을 검색하여 관심이 가는 펀드의 투자요건 세부내용과 해당 펀드를 운용사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직접 운용사에 투자유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는 펀드 찾기 서비스 외에도 기업들이 투자 계약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돕고자, 투자유치 유의사항과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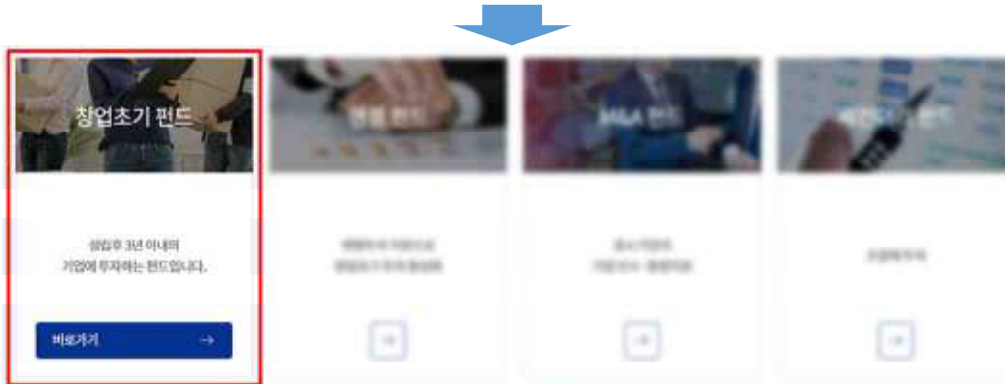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는 출자펀드에 대한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기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검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3월 중 모바일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펀드 분류(21개)

창업초기 펀드, 엔젤 펀드, M&A 펀드, 세컨더리 펀드, 소셜벤처 펀드, 여성 펀드, 청년 펀드, 재기지원 펀드, 고급기술 펀드, 지역 펀드, 해외 펀드, 4차산업혁명 펀드, 문화산업 펀드,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선업 펀드, 환경 펀드, 보건산업 펀드, 에너지 산업 펀드, 기술사업화 펀드, 일반 펀드, 일자리매칭 펀드



그림1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서비스
(출처 : 한국벤처투자)



창업초기 펀드

초기기업 >

대역창업

저음으로

초기기업 펀드

소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결성 현황 투자가능 초음: 30개 7,512억원, 누적 결성 초음: 30개

주목처 투자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 벤처기업
 · 창업지원대상 창업자 총 업력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대상 창업자로서 성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 상기 조건은 펀드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은 펀드 설명서에 문의하십시오.

총 30개의 펀드(결성총액 7,512억원)가 조회되었습니다.

번호	펀드명	결성일	결성총액 (투자금액)	존속 기간	운용사명 (선이번호)	납입사명 (연락처)	납입처 (주요명)	소재지	웹사이트
1	한일 창업초기투자펀드	2009-10-15	21억 (0억)	5년	한일벤처스프링 00-899-0951	한일증권 02-438-1096	sun@hankook.com	서울 등	-
2	대원-4000 벤처투자펀드	2009-12-01	20억 (0억)	5년	대원벤처스프링 02-552-7898	이상철 02-552-7892	GRANDVENTURE@daewon.com	서울 등	http://www.dvvc.com/4000

제1종 중소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① 활용 예시 :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Q : 제가 가진 아이디어로 사업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해 외부 투자를 받고 싶은데 창업한지 얼마 안 된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나요?

A :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에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들을 찾기 쉽게 분류해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초기 펀드] 메뉴를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와 운용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② 활용 예시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Q : 수도권에는 투자사가 많아 VC들에게 연락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어디로 연락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 :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목적(60%이상)으로 하거나 지자체 등이 일부 금액을 출자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부분을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에서는 소재지별로 분류하여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펀드]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펀드들과 운용사를 만나보세요.

Appendix I.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목록 및 연락처

아래 목록은 2018년 이후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된 주요 출자펀드 목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결성된 출자펀드가 투자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태 출자펀드 전체 목록 열람은 한국벤처투자 웹사이트(www.k-vic.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가상·증강현실	KAI-KVIC 가상증강현실투자조합	코리아에셋투자증권	02-560-6387
게임	데브-KDBC 문화투자조합	데브시스템벤처스	02-551-7903
		산은캐피탈	02-6330-0426
공공특허사업화	더웰스 IP기술사업화 투자조합	더웰스인베스트먼트	02-552-1203
관광산업육성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02-512-0707
		KB증권	-
문화 가치평가연계	캐피탈원 콘텐츠가치평가 투자조합	캐피탈원	02-595-7450
문화 일자리창출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	케이티비네트워크	031-628-6415
		대성창업투자	02-559-2900
문화산업 소액투자전문	레오 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02-516-4171
문화 해외연계	유니온글로벌익스피디션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02-594-8470
방송드라마	에쓰비방송콘텐츠투자조합	에쓰비인베스트먼트	02-3445-5011
	일신 뉴코리안웨이브 2호 투자조합	일신창업투자	02-767-6400
보건산업 초기기술창업	시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펀드	시너지아이비투자	02-586-5982
사회적기업	피씨씨 사회적기업2호 펀드	포스코기술투자	02-3457-6300
소셜임팩트	옐로우독같이하다투자조합	옐로우독	02-2289-1581
	D3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제1호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02-6239-0110
	코메스2018-2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	02-558-1996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02-2183-2740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다담인베스트먼트	02-563-4050
	미시간글로벌소셜임팩트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02-3445-1310
	미래 ESV 투자조합 제1호	고려대학교기술지주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02-3290-5894 063-214-0016

표1]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2019년 1월말 기준)

표1] (계속)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2019년 1월말 기준)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스포츠 산업 육성	ISU-AJ스포츠투자조합	이수창업투자	02-3482-2010
		AJ캐피탈파트너스	02-6240-0440
애니메이션·캐릭터	대교애니메이션전문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02-3289-4987
여성	델타벤처투자조합1호	델타인베스트먼트	02-6952-0069
재기지원	다산에스비에이재기투자조합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심본2호 리스타트 펀드	심본투자파트너스	02-3453-0333
	지온 재기지원 펀드	지온인베스트먼트	031-8023-7393
조선업 구조 개선	나우 에이스 파트너십펀드	나우아이비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02-565-6234 02-6911-1000
	캐피탈원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캐피탈원	02-595-7450
중저예산 영화	대성굿무비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02-559-2900
지방기업	케이브릿지2호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051-731-5222
지식재산권	시너지 밸류 웨이브 벤처펀드	시너지아이비투자	02-586-5982
창업초기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02-568-8470
	인터밸류2호 혁신창업 투자조합	인터밸류파트너스	02-564-0489
	2018 하나-마그나 스타트업 펀드	하나금융투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 02-554-2222
	SGI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조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02-3453-5500
	케이브릿지-코나 혁신 스타트업 투자조합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코나인베스트먼트	051-731-5222 02-508-0610
	뮤렉스퍼플1호투자조합	뮤렉스파트너스	02-585-1116
	디에이밸류플러스 2018의1호 신기술투자조합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02-558-7550
	데브-혁신모험초기 투자조합 4호	데브시스터즈벤처스	02-551-7903
	MTI스타트업320펀드	마젤란기술투자	02-6013-0114
	CKD-BS Start-Up 벤처투자조합	씨케이디창업투자 BS벤처파트너스	02-3453-3331 -
	스마트 혁신산업단지 제1호 투자조합	어니스트벤처스	031-776-4770
	DTNI-창업초기 혁신 투자조합	디티앤인베스트먼트	02-6009-8600
	BSK 8호 창업초기 투자조합	BSK인베스트먼트	02-538-0460
	DKI Growing Star 4호 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	02-3289-4987

주요 투자 분야	모태 출자펀드명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	대표번호
창업초기	비엔에이치스타트업3호투자조합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02-552-9769
	퀀텀창업초기1호투자조합	퀀텀벤처스코리아	02-6954-1091
	이앤벤처1호 창업초기투자조합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6
	다산창업초기투자조합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02-512-0707
	제이엑스 3호 투자조합	제이엑스파트너스	02-569-4661
(융합콘텐츠)	인라이트 4호 엔젤이아이 펀드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청년창업	MGI바이오신성장투자조합 1호	엠지인베스트먼트	02-3453-2582
청년창업	미시간글로벌파이어니어투자조합	미시간벤처캐피탈	02-3445-1310
	알바트로스넥스트제너레이션펀드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070-4924-5090
	유티씨스테이지컨텐츠펀드	유티씨인베스트먼트	02-783-3347
	케이넷 VALUE-UP 벤처투자조합	케이넷투자파트너스	02-3473-7117
	라구나 청년창업 투자조합 제1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070-4006-3344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ISU-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이수창업투자	02-3482-2010
해외IP수익화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2-545-5091
	IDV Global IP Growth 투자조합	아이디벤처스	02-556-9300
혁신성장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2-545-5091
	메디치 2018-2 중소선도기업 창업투자조합	메디치인베스트먼트	02-561-1881
	BNK-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투자조합	케이앤투자파트너스	02-567-0380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	티에스인베스트먼트	02-6250-5700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UTC2018-1)사모투자 합자회사	유티씨인베스트먼트	02-783-3347
	가이아혁신성장마케팅투자조합1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02-6451-5656

표1] (계속)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2019년 1월말 기준)

Appendix II.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의 ‘주요 투자분야’ 요약

아래 요약은 대표적 투자 대상을 기재해놓은 것으로 모태 출자펀드 별 투자대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표2]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주요
투자 분야 요약

주요 투자분야	투자 대상
가상·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게임	게임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공공특허사업화	공공특허를 사업화하는 기업
관광산업육성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문화 가치평가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은 프로젝트
문화 일자리창출	자본금 10억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거나, 고용인원 10명 이하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 소액투자전문	원천IP, 문화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 소액투자
문화 해외연계	글로벌 콘텐츠 및 글로벌 콘텐츠 관련 기업
방송드라마	방송드라마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보건산업 초기기술창업	보건산업 분야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사회적기업	1.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2.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중 존속기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설치된 사회적기업투자조합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소셜임팩트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캐릭터	애니메이션 또는 캐릭터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여성	여성이 최대 주주인 기업 또는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기업 또는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

표2] (계속)
2018년 이후 결성된
모태 출자펀드 주요
투자 분야 요약

주요 투자분야	투자 대상
재기지원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조선업 구조 개선	조선업 관련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저예산 영화	순제작비 5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 또는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한국영화로서,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국제영화제 출품 등 영화적 완성도와 작품성이 기대되는 작품
지방기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해외IP 수익화) 상기 투자 대상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이 창출·출원·보유한 해외IP 수익화 프로젝트
창업초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융합콘텐츠) 첨단 디지털콘텐츠 기술(VR·AR, 홀로그램 등)과 주력산업(제조, 의료, 국방, 교육)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초기기업
청년창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또는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또는 총괄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사드피해 인정기업, 용자 연체 중인 기업
혁신성장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

Venture Opinion

싱가포르 벤처캐피탈(VC) 육성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한국벤처투자 조사분석팀 배승욱 연구위원

'벤처 오피니언'은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선정 후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매월 제공합니다.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주)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Summary

▷ 싱가포르는 국가차원에서 VC 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상장회사 차등의결권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창업·벤처시장 육성을 위해 VC 최저자본금 완화, 세제혜택,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 다양한 VC 육성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1. 서언

최근 싱가포르는 벤처캐피탈(이하 VC)이 경제성장 및 혁신에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판단하에 VC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A Simplified Regulatory Regime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이하 VCFM), 새로운 회사형태(Variable Capital Company 이하 VACC) 도입, 과감한 조세감면 및 상장회사 차등의결권 도입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VC 유치를 통해 Southeast Asia VC Center로 확고히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기존의 친기업적 정책, 과감한 조세감면,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체계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싱가포르는 Southeast Asia VC Center로 확고히 인정받고 있으며,¹⁾ 더 나아가 Asia VC Cent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는 2018년 스페인 Navarra 대학 IESE 비즈니스 스쿨의 VC & PE 매력도 국가 순위 조사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²⁾

이것은 단순히 싱가포르만의 움직임은 아니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케이만제도 등 Global VC Center로 인정받기 위한 국가들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전 세계 주요국의 VC 활성화 방안 및 제도를 연구하여 자국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가 최근에 도입한 다양한 육성방안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도 Global VC Center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싱가포르 VC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규제 개관을, 제4장에서는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려고 한다.

1) SVCA, "Southeast Asia PE&VC: Investment Activity", 2018.5, p.6, "여기서 Southeast Asia라 함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의미한다."

2) Alexander Groh, Heinrich Liechtenstein, Karsten Lieser and Markus Biesinger, "The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2018", IES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Navarra, 2018, p.17, "1위부터 5위까지는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캐나다, 4위 홍콩, 5위 일본이다."

2. 싱가포르 VC 역사 및 현황

■ VC 역사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1인당 GDP 400달러로 최빈국이었지만, 정부 중심의 강력한 제조업 개발정책으로 연평균 8%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³⁾ 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인건비 상승 등 제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제조업 경쟁우위를 내어주고 1985년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는 방안 중 하나로 VC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게 된다. 그 중 하나로 정부는 1985년 VC에게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민간 부문의 싱가포르 VC 산업은 정부보다 먼저 시작되었는데, 최초의 민간 VC펀드는 1983년 싱가포르 내에 조성한 South East Asia Venture Investment(이하 SEAVI)로 S\$4800만⁴⁾을 모집하였다.⁵⁾ SEAVI는 미국 VC 기업인 Advent International이 참여한 VC펀드로, Advent International은 1984년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자회사인 SEAVI Advent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80억 달러 규모의 VC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후 싱가포르의 VC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였고 1993년 싱가포르VC협회(Singapore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SVCA)가 설립되었다.

3) Winston T.H. Koh, Poh Kam Wong,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Singapore: A Comparative Study with TAIWAN and ISRAEL on the Government's Role", 2005.5, p.10.

4) 이 글에서 S\$는 싱가포르 달러를 의미한다.

5) Francis KOH, Winston T.H.KOH, "Venture capital and economic growth: An industry overview and Singapore's experience",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Institutional Knowledge at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Research Collection Lee Kong Chian School Of Business, 2002.11, p.19.

■ 정부 VC투자 및 시장현황

VC 산업은 민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VC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달성한 것은 정부주도의 자금이 투입되면서부터였다. 1985년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이하 EDB)을 통해 S\$1억 규모의 정부 주도의 VC펀드(EDB Venture Capital Program)를 도입하였다.⁵⁾ 또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싱가포르의 R&D(연구개발) 지출 금액을 GDP 2%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S\$70억 규모의 R&D펀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 - National Technology Plan 등)를 조성하여 투자하였다. 그 이후로도 1999년 스타트업을 위한 VC펀드(Venture Investment Support for Startups) 및 엔젤매칭펀드(NSTB, EDB and TIF Ventures - Business Angel Fund Co-Investment Scheme) 등과 같이 정부주도의 자금을 지속해서 VC 시장에 제공하였다. 현재도 EDB, Infocomm Investments Pte Ltd(I IPL), Singapor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SNRF), SPRING SEEDS Capital(SEEDS) 등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활발히 펀드를 조성하여 VC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⁵⁾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1983년 S\$4800만(AUM) 규모로 시작되었던 싱가포르 VC 시장은 2017년에는 약 S\$56억(AUM)으로 30여 년간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⁶⁾ 이러한 성장 추세는 현재에도 이어져서 2016년 싱가포르에서 VC 부문 총 투자금액(AUM)은 약 S\$47억으로 2017년에는 이에 비해 약 S\$9억 정도 성장하였다. 2017년에는 Grab, Lazada & SEA를 포함한 3건의 대규모 벤처투자로 인해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벤처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Southeast Asia의 246개의 VC들 중 157개의 VC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아시아 상위 10개 벤처 투자 중 3개가 싱가포르 기업 투자건이었다.

5) Betty Ho, "Venture Capital arms of the Singapore Government", 2017.3.22.

6) PWC, "PWC's Briefing for Venture Capital Managers - New Regulatory Regime for Venture Capital Fund Managers", 2017, p.4.

3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규제 개관

■ 펀드매니저 규제

싱가포르는 VC를 위한 규제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VC도 일반 펀드매니저와 같이 증권선물거래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이하 SFA)과 하위 규정(Regulations)의 규제를 받는다.⁷⁾ 또한 SFA에 따라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이 제정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규제도 받게 된다. 최근 VC 펀드매니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하에서 살펴 보겠다.

싱가포르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⁸⁾는 MAS로부터 Capital Markets Services(이하 CMS) License를 받거나 CMS License 면제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CMS License의 종류는 적격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만⁹⁾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형 FMC(Licensed Fund Management Company-Accredited or Institutional 이하 LFMC-A/I)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형 FMC(Licensed Fund Management Company-Retail 이하 LFMC-Retail)로 분류된다.

펀드매니저가 위의 두 가지 CMS License를 받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Registered FMC(Registered Fund Management Company 이하 RFMC)로 MAS에 등록하여야 한다. RFMC로 등록하고자 하는 펀드매니저는 30인 이하의 전문투자자(Qualified Investors)에게 총 자산(Total AUM) S\$250,000이하의 금액을 모집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문투자자(Qualified Investors)란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s)¹⁰⁾ 또는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¹¹⁾를 의미한다. LFMC-Retail, LFMC-A/I, RFMC는 MAS의 승인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7) Dr. Lin Lin, "Venture Capital in Singapore: The Way Forward", Journal of Business Law, 2019, p.4.

8) 펀드매니저는 일반적으로 Fund Management Company(이하 FMC)를 설립한다.

9) 적격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10)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ment)란 순자산이 S\$2백만 초과이거나 또는 연간 수입이 S\$300,000 이상인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은 순자산이 S\$1천만을 초과하여야 한다.

11)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에는 연금펀드, 집합투자기금, 은행, 준정부기관(Statutory Boards)도 포함된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요건으로는 최저자본금, 컴플라이언스 구축의무,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의무 등이 있다. 다만 RFMC는 다른 두 가지 인허가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30명 이하의 전문투자자에게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를 받기 때문이다.

추가로 모든 FMC는 계속기업행위요건(Ongoing Business Conduct Requirements)을 준수해야 한다. 계속기업행위요건에는 수시 및 정기공시, 이해상충방지의무, 수탁재산의 별도 예치 및 가치산정의무 등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인허가 규제를 면제받았던 펀드매니저(이하 Exempt FMC)를 규제하기 위해 RFMC 제도를 도입하였다. RFMC가 도입되기 전 2011년에는 540개의 Exempt FMC가 존재하였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540개의 Exempt FMC 중 260개만이 RFMC로 전환하였고, 140개는 LFMC-Retail, LFMC-A/I로 전환하였다. 또한 나머지 140개 Exempt FMC는 합병되거나 청산하였다. 결과적으로 2016년 RFMC는 268개로 4년 동안 8개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케이만제도의 Exempt FMC와 비교되어 싱가포르 내에 규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2017년 10월 벤처캐피탈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싱가포르 경제 성장과 혁신에 벤처캐피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VC 펀드매니저에게 인허가 과정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VCFM)을 발효하였다.¹²⁾ VCFM에 따라 VC 펀드매니저로 인증된 자는 최소자본금 요건 면제, 내·외부감사의무 면제,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의무 면제 등 일반 펀드매니저보다 아래 표와 같이 매우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VC는 그 밖의 일반 펀드매니저 규제는 받아야 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모든 규제를 받지 않고 일부의 규제만 받음을 공지해야 한다. VCFM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여야 하며,¹³⁾ 둘째, 10년 이하의 스타트업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에 8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펀드는 폐쇄형으로 운용되어 환매는 펀드의 청산 시에만 가능하여야 한다. 넷째, 적격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만 투자를 받아야 한다.¹³⁾

12) MAS, "Proposed Regulatory Regime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Consultation Paper P004-2017, 2017.2.

13) Iyer Practice, "Venture Capital Fund Management Regime("VCFM Regime")", 2018.3, p.3.

	RFMC	LFMC-A/I	LFMC-Retail	VC Managers
승인유형	신고 (Notification)	인허가 (License)		신고 (Notification)
투자자	Qualified Investors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투자자수	30인 이하 (또는 15인 이하)	제한없음		
운용자산 (AUM)	S\$2억5천만 이하	제한없음		
최소자본금	S\$25만 이상		S\$50만 이상(Non-CIS) 또는 S\$1백만 이상(CIS)	필요없음
지급여력비율	필요없음	120% 이상		필요없음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권고사항		의무	미정
이사	5년 이상 경력 이사(Directors) 2인 중 1인은 상근 싱가포르 거주		5년 이상 경력의 이사 2인 중 1인은 10년 이상 경력 상근 싱가포르 거주	이사(Directors) 2인 중 1인은 상근 싱가포르 거주
전문인력 (이사, CEO 및 FMC 포함)	싱가포르 거주 5년 이상 경력 상근 전문인력(Relevant Experience) 2인		싱가포르 거주 5년 이상 경력 상근 전문인력 3인	싱가포르 거주 상근 전문인력(Relevant Experience) 2인
대표	싱가포르 거주 5년 이상 경력 상근 대표(Representatives) 2인			싱가포르 거주상근 대표(Representatives) 2인
승인유지 검사	의무아님		의무	필요없음
회사트랙레코드	필요없음	필요할 수 있음	일반투자자대상 펀드 운용 5년 이상 및 총 운용자산(AUM) S\$10억 이상	필요없음
별도예치	고객 자금 및 자산 법정 수탁기관 예치 의무			필요없음
펀드관리	펀드가치평가, 회계, 등록, 고객보고 의무			고객보고 의무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AUM S\$10억 이상인 경우 프론트 오피스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컴플라이언스 조직		AUM S\$10억 미만인 경우 아웃소싱 가능
내부감사	내부 감사는 회사 내부의 조직을 둘 수도 있고 외부에 아웃소싱 할 수도 있음			필요없음
외부감사	외부에 독립된 감사기관으로부터 연간 재무보고서를 회계감사 받고 MA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필요없음
리스크관리	회사내부에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의무			사업모델 및 위험도 상 리스크관리체계를 아웃소싱할 수 있음
자금세탁방지	회사내부에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의무			
보고의무	연간보고	분기 및 연간보고	분기 및 연간보고	연간보고 (분기별 수입 지출보고서 제출)

표1] 싱가포르 펀드매니저 규제 비교표
(출처 : Deloitte, "Fund Management in Singapore - A Summary of the Regulatory and Tax Framework"(2017), Dr. Lin Lin(2019), SIDLEY, "Singapore Launches New Regulatory Regime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2017))

■ 펀드 규제

싱가포르는 펀드매니저와 별도로 펀드도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VC 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s)로 분류되어 SFA에 따라 MAS에게 인가(Authorized, 싱가포르 역내 펀드) 또는 등록(Recognized, 싱가포르 역외 펀드)을 받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MAS의 승인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방법으로서는 싱가포르 VC 펀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적격투자자전용펀드(Restricted Scheme Exemption)가 있다(Section 305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Act, Chapter 289 of Singapore). 적격투자자전용펀드(Restricted Scheme Exemption)는 펀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격투자자(Accredited) 및 그 밖의 관련자에게만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다. 적격투자자전용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대신 일반 펀드보다 간소화된 특정 정보만을 담고 있는 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를 MAS에 제출한다.

싱가포르에서 많이 이용되는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 펀드는 케이만제도 뮤추얼펀드법(Mutual Funds Law 이하 MFL)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와는 달리 등록면제 뮤추얼펀드(Exempted Mutual Fund), 등록뮤추얼펀드(Registered Mutual Fund), 인허가 뮤추얼펀드(Licensed Mutual Fund) 세단계로 규제를 받고 있다. 등록면제뮤추얼펀드는 15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면서 다수의 투자자 의견으로 펀드 운영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펀드이며, 등록뮤추얼펀드는 투자자당 약 S\$13만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펀드의 지분 또는 주식이 공인된 주식시장(Recognised Stock Exchange)에 상장된 펀드를 의미한다. 인허가뮤추얼펀드는 케이만제도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MFL에 따라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펀드를 의미한다.

케이만제도의 등록면제뮤추얼펀드는 규제 당국에 증권신고서뿐만 아니라 투자안내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는데, 싱가포르의 적격투자자전용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를 받고 있기에 재간접펀드 구조의 싱가포르 VC 펀드에서 모펀드로 많이 이용된다.

■ 펀드 구조

최근까지 싱가포르 기업의 형태는 조합(Sole Proprietorships and General Partnerships)과 회사(Companies)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조합은 지분권자와 조합이 법률상 별개로 취급되지 않기에 도산절연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회사는 주주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에 의해 도산절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였지만, 세제상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기에 싱가포르 내에서 새로운 기업의 형태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회사법개정위원회는 Limited Partnership(이하 LP)을 싱가포르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9년 싱가포르 회사법 내에 LP를 도입하였다. LP의 장점으로는 투자자가 조합으로부터 도산절연이 가능하면서 세제상 조합과세를 적용받기에 VC 펀드 구조로써 매력적이다. LP의 구조에서는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이하 GP)과 조합채무에 대해 제한적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 이하 LPs)으로 나뉘는데, 보통 VC 펀드매니저가 GP의 역할을 맡고, 투자자는 LPs로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제정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싱가포르 내에 LP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싱가포르 기반의 펀드매니저는 케이만제도의 Exempted Limited Partnerships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LP와 케이만제도의 Exempted Limited Partnerships는 법률구조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펀드설립기간도 싱가포르가 일주일 케이만제도가 3~5일 정도로 유사하기에 싱가포르 기반의 PE 펀드 매니저들이 케이만제도에서 펀드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법률에 따른 규제 차익이라기보다는 케이만제도의 친기업적인 세금혜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케이만제도는 VC 펀드에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VC 펀드는 싱가포르 내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Extensive Double Tax Treaty(DTA) Network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싱가포르 VC펀드는 모펀드에 외국(케이만제도 등)의 Limited Partnership을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고, 지분을 100% 확보한 출자펀드에 싱가포르 회사를 설립하는 재간접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금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구조이다.

4.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육성 방안

■ 변동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도입

도입배경

국제적으로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이하 CIS) 구조는 투자신탁(Unit Trusts) 또는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ies)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회사법상 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CIS를 운용하기에 제약이 존재하기에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ies)보다 주로 투자신탁(unit trusts)이 이용되고 있다.¹⁴⁾ 또한 회사법상 출자펀드(Sub-Funds)의 자산과 부채를 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 투자회사의 형태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엄브렐라펀드(Umbrella Fund)도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국제적 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CIS를 위한 특별한 구조(출자펀드 도산절연 등)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많은 펀드매니저들은 해외의 회사구조로 설립된 펀드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회사의 구조가 CIS에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싱가포르 당국은 보고 있다.¹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AS는 2017년 3월 23일 CIS에 특화된 새로운 회사유형인 변동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ies 이하 VACC)를 제안하였고 2018년 10월 1일 변동자본회사법(Variable Capital Company Bill)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¹⁶⁾ VACC는 기존의 회사와는 달리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이하 NAV)로 주주에게 주식을 상환(Redemption)할 수 있고, 출자펀드의 자산과 부채를 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등 CIS를 만드는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싱가포르 기반의 CIS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⁷⁾

14) MAS, "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ed Framework for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ies", Consultation Paper, 2017.3, p.3.

15) Iyer Practice, "Regulatory Update-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y("VCC")", 2018.10., p.3.

16) Indranee Rajah S.C., "The VCC: A Game-Changer for Singapore's Funds Industry", Second Minister and Education, 2018.10.2., p.1.

17) PWC,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y(S-VACC)-The game changer for asset management in Asia Pacific", 2017., p.9.

VACC법은 총 167개의 조문¹⁸⁾으로 이루어진 법으로서 기존의 회사법 내에 포섭하게 된다면 법률상 예상치 못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VACC법은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었다.

감독당국

기본적으로 싱가포르기업청(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이하 ACRA)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으며 VACC법도 ACRA가 관리하게 된다. 다만 VACC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AML/CFT)에 관해서는 MAS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¹⁹⁾ VACC는 주주명부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와 정관은 일반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적용대상

CIS는 투자기구(Vehicle)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어떤 다른 사업(Business)에서도 이용될 수 없다. 다만 향후에는 적용가능 대상을 넓힐 수도 있음을 MAS가 밝혔다. 또한 단일펀드의 형태뿐만 아니라 재간접펀드의 유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법상의 2인 이상의 주주요건을 없앴다.

주식상환

기존의 싱가포르 회사법(Chapter 50)은 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상환(Redemption)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자본금을 유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처럼 회사 주식의 상환을 금지하면 빈번하게 환매청구가 일어나는 펀드구조에서는 회사구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VACC는 정관(Constitution)으로 주식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폐쇄형 펀드뿐만 아니라 개방형 펀드에서도 VACC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관상 상환에 따른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상환 주식은 순자산가치(NAV)로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VACC는 주식의 상환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 및 배당에 관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Singapore Parliament, "Variable Capital Companies Bill", Bill No. 40/2018.

19) Clifford Change,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y - Powering Further Growth in the Funds Industry", 2018.9.

엄브렐러펀드

하나의 법인격 안에 출자펀드를 만들어 자산과 부채를 분리할 수 있으며 다만 출자펀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VACC는 엄브렐러펀드(Umbrella Fund)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엄브렐러 VACC는 특정 공시의무를 가지며, 출자펀드간의 상호 투자도 가능하다. 출자펀드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과 같이 다른 출자펀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AS는 출자펀드간의 위험전이를 차단할 의무를 SFA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엄브렐러 VACC에 부과할 예정이다. 출자펀드는 별도의 투자목적, 투자자, 투자자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이사회, 펀드매니저, 수탁업자, 감사인, 관리자 등은 공유할 수 있다.

지배구조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된 펀드매니저로 임명해야 하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사는 허용된 펀드매니저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펀드매니저는 VACC를 운용할 수 있지만 MAS 규제를 면제받은 펀드매니저(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펀드매니저)는 VACC를 운용할 수 없다. 하지만 MAS는 장래에는 이러한 제한을 풀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VACC의 이사는 적절한 요건(Fit and Proper)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이사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Independent Director)와 1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를 두어야 한다.

수탁기관

싱가포르 MAS로부터 승인된 수탁자(Trustee)를 임명하여야 하고, 임명된 수탁자는 VACC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 의무는 VACC의 이사회에 부과된다. 다만 Restricted Schemes 구조의 VACC에게는 수탁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미리 정해진 기관(은행, 수탁기관, 증권회사 등)의 계좌 또는 신탁을 통해 그들의 자산을 분리보관하면 된다. PE/VC펀드와 같이 투자자들이 수탁계약의 부존재를 미리 인지한 경우에는 자산을 분리보관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Financial Statements)는 IFRS, ASC(Accounting Standards Council Singapore) 또는 US GAAP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자펀드도 VACC와 같은 기준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청산

주식회사의 청산(Winding-up)과 유사하게 VACC도 주주의 해산결의(Members' Resolution)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회사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VACC를 청산할 수 있으며, CIS 이외의 목적으로 VACC를 사용한 경우에도 청산이 가능하다. 그 밖에 일정한 기간 내에 허용된 펀드매니저를 임명하지 않거나 자금세탁의무 및 테러자금방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법률위반의 경우에도 VACC는 법원에 의해 강제로 청산될 수 있다. 출자펀드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지만 단독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출자펀드의 자산과 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domiciliation 및 구조조정

회사법상 기존의 Re-domiciliation²⁰⁾ 제도를 VACC에도 채택하였다. 다만 회사법의 특정요건에 따라 총자산, 연수익, 종업원 수 등이 기존 이하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Re-domiciliation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회사법상 구조조정에 관한 합병, 분할 등의 제도들이 VACC에도 적용된다. 출자펀드도 정관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MAS는 향후 기존의 싱가포르 등록 CIS가 VACC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 Re-domiciliation이란 한국가에서 받은 회사등록을 또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것은 해외에 지사를 세우거나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해외의 싱가포르 지사는 여전히 싱가포르 내에 있는 해외의 회사와 같기 때문에 해외 본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외 회사가 싱가포르 내에서 Re-domiciliation를 받게 된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법규를 준수하면 된다.

VACC 세제혜택

2018년 재무부장관은 예산보고서에 VACC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밝혔다. 첫째, VACC는 회사로 취급되어 세제 목적상 단일의 기관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단일의 소득세 신고의무만을 부과한다. 둘째, 기존에 존재하는 13R 및 13X의 세금면제 혜택이 VACC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셋째, 기존의 펀드매니저에게 10% 할인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인센티브를 VACC 허용된 펀드매니저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넷째, 기존의 펀드에 적용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감면을 VACC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DTAs 네트워크가 VACC에게 적용되어 아시아 및 그 밖의 국가들의 투자자들에게도 VACC가 매력적일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펀드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의 목적을 위한 설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세법상 “Check the Box”²¹⁾ 규정의 조합과 같이 “Pass-Through”(도관이론)가 적용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21) Check the Box란 기업이 조합과세를 받는지 또는 법인과세를 받는지 선택할 수 있게 1996년 미국에 도입된 과세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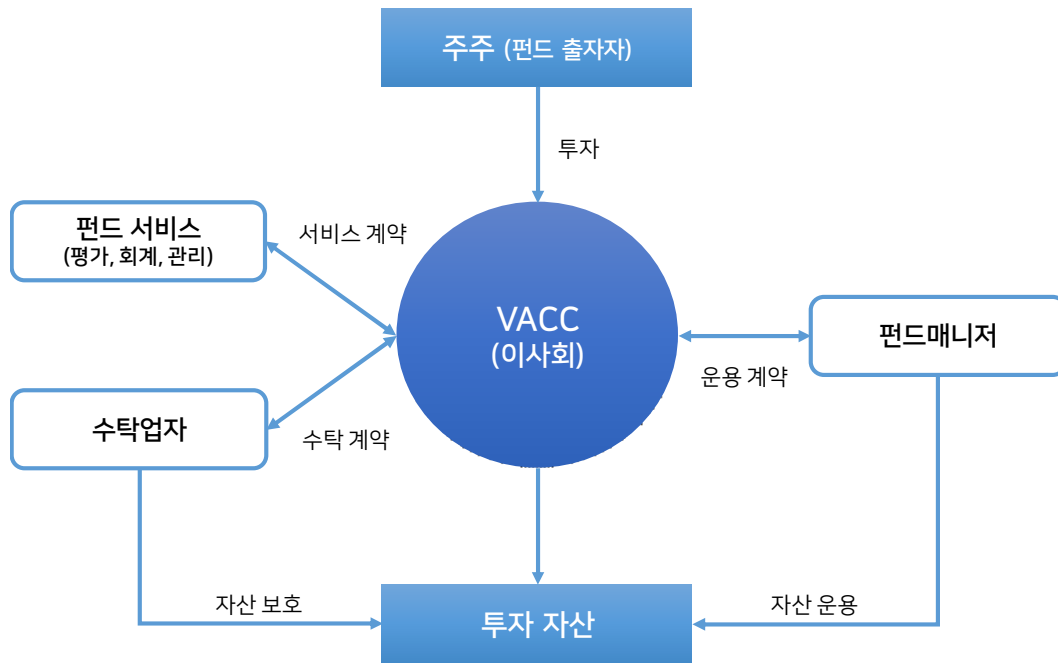


그림1] VACC 단일펀드 구조
(출처 : Indranee Rajah S.C., "The VCC: A Game-Changer for Singapore's Funds Industr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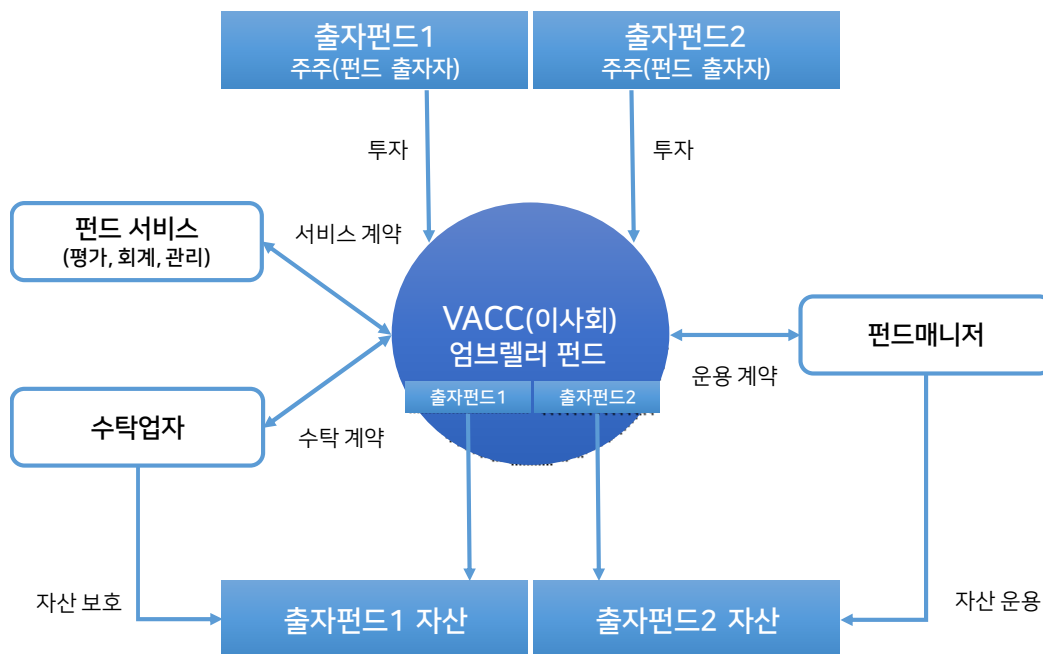


그림2] VACC 출자펀드 구조
(출처 : Indranee Rajah S.C., "The VCC: A Game-Changer for Singapore's Funds Industry"(2018))

■ 차등의결권 제도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Asia VC Center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200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ies)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였다.²²⁾ 그 후에 상장회사에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는데 과도한 경영권보호 및 기업인수시 차등의결권 주식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이 좌절되었다. 2012년 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가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Stock Exchange 이하 SGX)에 차등의결권 주식을 상장하는 조건으로 IPO를 시도하였지만 같은 논리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뉴욕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상장회사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지만 미디어회사(방송법 상의 언론사에 한함)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상장회사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장회사에 대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구글, 페이스북, 그루폰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제도의 이용에 성공하면서 싱가포르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2016년 초 차등의결권 제도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허브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에 대한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회사법 64조 1항의 1주 1의결권 내용을 삭제되면서 상장회사에도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회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MAS와 SGX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를 하였고, 논의의 결과로 2018년 6월 26일 SGX는 1주 당 최대 10 의결권까지 부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상장규정을 발표하였다.²³⁾²⁴⁾

22) Michelle Dy, "The Future of a Dual-Class Shares Structure in Singapore Roundtable Discussion Repor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entre for Banking & Finance Law Faculty of Law, 2016.12, p.2,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는 2003년 회사법 개정 이전에도 차등의결권주 발행이 가능하였다.", SGX, "Possible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Consultation Paper, 2017.2.16.

23) Legiswatch, "SGX introduces Primary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2018.7.

24) SGX,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 amendments to mainboard rules", 2018.6.26.

2017년 Southeast Asia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VC투자 회수는 모두 M&A를 통한 회수이었으며,²⁵⁾ 2016년 기준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회수도 M&A이었다.²⁶⁾ 또한 2005-2015년까지 단지 11개 Tech Startup만이 IPO로 회수되었으며, 이 중 SGX에 상장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동일기간 127개의 Tech Startup이 M&A를 통해 회수되었다. 이것은 VC 투자를 받는 회사(이하 VC-backed 회사)들이 SGX에 상장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이 SGX에 IPO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VC 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당국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SGX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VC-backed 기업들이 SGX에 상장하는데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VC-backed 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IPO를 통해 모집하면서도 회사의 지배력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는 High Tech 회사 창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걸리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SGX에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Catalist²⁷⁾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VC-backed 회사들은 대부분 Tech Startup들로서 SGX에 바로 상장하기에는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Catalist에 상장하게 된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VC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Catalist에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싱가포르 내에서 나오고 있다.²⁸⁾²⁹⁾

25) Preqin, "Venture Capital in Southeast Asia", 2017.9.

26) Golden Gate Ventures, "The Bamboo Report", 2016, p.9.

27) Catalist는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같이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싱가포르 거래소이다.

28) Dr. Lin Lin, "Venture Capital in Singapore: The Way Forward", Journal of Business Law, 2019.

29) SGX,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 amendments to mainboard rules", 2018.6.26.

■ 세제혜택

싱가포르 내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자는 그 자가 역내(Onshore)·역외(Offshore Fund)에서 등록하였는지 구분하지 않고, 또한 펀드가 싱가포르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와 같은 안전항(Safe Harbor) 규정을 두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2]
싱가포르 펀드
세제혜택 비교표
(출처 : Deloitte, "Fund Management in Singapore - A Summary of the Regulatory and Tax Framework"(2017), Eversheds Sutherland(2018.7))

	역외펀드기구 (Offshore Fund Tax Exemption Scheme)	역내펀드기구 (Onshore Fund Tax Exemption Scheme)	Enhanced Tier Fund Tax Exemption Scheme
세제혜택	지정투자(Designated Investments)로부터 얻은 수익은 과세하지 않음		
펀드의 법률유형	외국회사, 신탁, 개인	싱가포르 회사	회사, 신탁, LP
근거 법률	소득세법 13CA, 소득세 관련규정 2010	소득세법 13R, 소득세 관련규정 2010	소득세법 13X, 소득세 관련규정 2010
투자자	싱가포르 등록 펀드가 아니어야 하며, 싱가포르투자자가 100% 소유를 하지 않아야 함	싱가포르투자자가 100% 소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적격투자자(Qualifying Investor)이어야 함	제한 없음
지정투자 (Designated Investments)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투자, 단 부동산 투자는 제외(부동산이 과다한 비상장회사 주식도 제외)		
펀드운용자	MAS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CMS 인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거주 운용자	MAS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CMS 인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거주 운용자	MAS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CMS 인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거주 운용자(최소 3인 이상 전문가)
Non Qualifying Relevant Owner Test	펀드의 30% 이하(일정조건 50%)만 싱가포르 비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음	펀드의 30% 이하(일정조건 50%)만 싱가포르 비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음	제한 없음
펀드 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최소 S\$5천만
싱가포르에 등록된 관리자	필요 없음	필요 있음	필요 있음
추가요건	없음	각 회계연도내에 S\$20만을 지출하여야 함	각 회계연도내에 S\$20만을 싱가포르에서 지출하여야 함
MAS 연간보고	필요 없음	필요 있음	필요 있음

펀드매니저 인센티브

싱가포르는 펀드매니저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을 최대 10%(소득세 22%, 법인세 17%)로 제한하는 “펀드매니저를 위한 금융부문 인센티브제도”(Financial Sector Incentive for Fund Management 이하 FSI-FM)를 두고 있다. FSI-FM의 대상은 등록 5년 내에 펀드매니저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MAS에 의해 펀드매니저 인허가 또는 면제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둘째, 펀드 총 운용자산(AUM)이 최소 S\$2억5천만 이어야 한다. 셋째, 최소 3인 이상의 투자전문가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전문가란 ①최소 월급 S\$3,500이상, ②펀드운용, 조사분석, 트레이더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로 MAS에 의해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 다만 MAS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펀드 매니저 중 전문가의 숙련도, 총운용자산 목표금액, 사업비지출규모, 전문가 수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FSI-FM을 부여할 수 있다.

VC 펀드 인센티브

기본적으로 VC 펀드는 인정투자(Approved Investment)에 한해서 세금 면제 또는 10% 세율로 과세를 해왔으나, 최근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VC를 육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5% 세율로 과세하는 인센티브를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성과보수

펀드성과보수(Performance Fees)는 일반적으로 펀드운용회사에 관리보수에 포함 되어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최대 17%의 법인세율로 과세를 한다. 다만 펀드 매니저가 FSI-FM 대상일 경우에는 최대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만약 성과보수를 매니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최대 22%의 소득세율로 과세한다.

5. 정책적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지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경제연구소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4~2.5%로 2018년 2.7%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주요 산업들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해서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역은 혁신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1985년부터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혁신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 차원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였고, 더 나아가 친기업적 정책수립, 과감한 조세감면,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체계의 수립으로 해외 주요 VC들을 유치하여 Southeast VC Center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2018년 싱가포르 1인당 GDP는 6만 1,716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였고, 2018년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모태펀드를 통해 수많은 혁신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벤처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VC 산업관련 제도 및 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도입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내 VC 산업을 더욱 육성 시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VC 육성방안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도 다양한 VC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 요건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최근 창업투자회사 최저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었지만 최소자본금 규제가 없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여전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만약 자본금을 낮춘다면 자금은 부족하지만 특정분야의 전문성·인적자본·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VC들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VC들이 시장에서 더욱 벤처기업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제혜택의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VC의 수익(관리보수·성과보수 등)에 대하여 10%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 VACC와 유사한 변동자본회사 형태의 새로운 회사제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VC는 주식회사, LLC 이외에는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회사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자금조달 및 투자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BDC와 유사하게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여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VC에 특화된 개방형 공모펀드로서 이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다만, 법안을 살펴보면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 당 1의결권만을 가지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경영자가 상장 및 M&A를 통해 자유롭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양도시에도 차등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또한 재벌의 상속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할 경우에는 1의결권만을 가지는 보통주로 변경되도록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밖에 재벌에게 유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추후 더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8년 11월에 정부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목적은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벤처시장의 투자활성화를 기반으로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KVIC MarketWatch**

참고문헌

문준우, “싱가포르 공개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2017)

Alexander Groh, Heinrich Liechtenstein, Karsten Lieser and Markus Biesinger, “The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2018”, IES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Nacarra, 2018, p.17.

Betty Ho, “Venture Capital arms of the Singapore Government”, 2017.3.22.

Clifford Change,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y – Powering Further Growth in the Funds Industry”, 2018.9.

Deloitte, “Fund management in Singapore – A summary of the regulatory and tax framework”, 2017

Dr. Lin Lin, “Venture Capital in singapore: The Way Forward”, Journal of Business Law, 2019.

Francis KOH, Winston T.H.KOH, “Venture capital and economic growth: An industry overview and Singapore’s experience”,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Institutional Knowledge at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Research Collection Lee Kong Chian School Of Business, 2002.11, p.19.

Golden Gate Ventures, “The Bamboo Report”, 2016, p.9.

Indranee Rajah S.C., “The VCC: A Game-Changer for Singapore’s Funds Industry”, Second Minister and Education, 2018.10.2., p.1.

Legiswatch, “SGX introduces Primnary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2018.7.

Iyer Practice, “Venture Capital Fund Management Regime(“VCFM Regime“)", 2018.3, p.3.

MAS, “Proposed Regulatory Regime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Consultation Paper P004-2017, 2017.2.

MAS, “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ed Framework for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ies”, Consultation Paper, 2017.3, p.3.

Michelle Dy, “The Future of a Dual-Class Shares Structure in Singapore Roundtable Discussion Repor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entre for Banking & Finance Law Faculty of Law, 2016.12, p.2.

Preqin, “Venture Capital in Southeast Asia”, 2017.9.

PWC, “PWC’s Briefing for Venture Capital Managers – New Regulatory Regime for Venture Capital Fund Managers”, 2017, p.4.

PWC, “Singapore Variable Capital Company(S-VACC)–The game changer for asset management in Asia Pacific”, 2017., p.9.

SIDLEY, “Singapore Launches New Regulatory Regime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2017.

Singapore Parliament, “Variable Capital Companies Bill”, Bill No. 40/2018.

SGX,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 amendments to mainboard rules”, 2018.6.26.

SGX, “Possible Listing Framework for Dual Class Share Structures”, Consultation Paper, 2017.2.16.

SVCA, “Southeast Asia PE&VC: Investment Activity”, 2018.5, p.6.

Winston T.H. Koh, Poh Kam Wong,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Singapore: A Comparative Study with TAIWAN and ISRAEL on the Government’s Role”, 2005.5, p.10.

「KVIC MarketWatch」는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주)가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월간 저널입니다.